6일 Market Index
코스피 5059.69 (-324.11)
코스닥 644.27 (-34.14)
금리(국고채 3년) 3.613 (-0.056)
환율(원-달러) 1356.6 (+14.5)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하나금융그룹

m-커버스토리

내년 기업 회사채 72조 만기 도래

1~2월에만 24조 빚 폭탄 '잔인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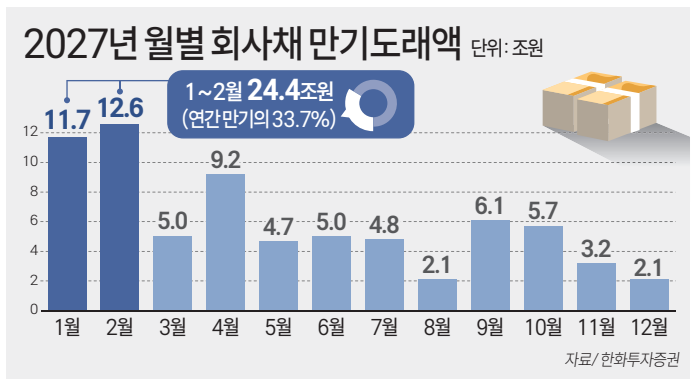
취약기업 부실 늪 우려

"지난 2024년 회사채를 끌어다 쓴 게 화근이다. 치솟은 금리가 지금과 같다면 빚이 폭탄이 될 것 같다.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면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운영자금 조달 길까지 막힐 수 있어 걱정이다." (한 중견 기업 재무 담당 임원 A씨)

요즘 각 기업의 자금 담당자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조달 금리는 하늘을 찌르는데, 내년에 갚아야 할 회사채 빚만 72조원에 달한다. 유동성 위기로 취약 기업들이 실제 부실의 늪에 빠지거나 도산한다면 금융시장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8일 투자은행(IB)업계와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기업(금융회사·공기업 제외)이 내년에 상환해야 할 회사채가 72조3010억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인 올해(73조1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 'A+' 이하 비우량 회사채는 16조6030억원어치로 집계됐다. 내년 만기가 많은 것은 지난 2024년 기업들이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 발행사들이 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렸고, 이 물량의 만기가 내년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실제 내년 전체 만기도래액의 57%(29조원)가 2024년 발행 3년물이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연체율은 시장금리에 후행하는 성격"이라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금리도 큰 폭 상승해 온 만큼 추가 연체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중소·중견 기업들에는 '잔인한 봄'이 예고된다. 1~2월 만기도래 물량이 24조3630억원으로 내년 만기의 33.7%가 몰려 있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에 48조274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온다.

크레딧 시장 한 관계자는 "상당수 A급 이하 기업은 수년 전부터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내년 이들 기업이 회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AA급 이상 우량 회사의 자금 조달 여건도 빡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초 이후 10월까지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등급은 1조원가량 순상환됐다. 'A+' 이하 비우량 등급은 5조2000억원 순상환됐다. 2017년(5조5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본부장은 "기관투자가들이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만 선호하고 비우량 회사채는 외면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A'급 이하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추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10월 초 기준 신평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별 하향 조정 건수는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71건으로 48% 증가했다. 중앙그룹을 제외하면 업종별로는 제조·전자 기업의 신용도 하향이 두드러졌다. 롯데알미늄(A2→A2-), SK아이이테크놀로지(A→A-), SK넥실리스(A2→A2-), 에코프로(A2, 안정적→부정적), 롯데케미칼(AA-, 안정적→부정적)과 여천NCC(A-→BBB+) 등의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3년 만기에 신용등급 AA-무보증 회사채 금리는 6일 기준 연 4.313%로 지난해 말(연 3.476%) 대비 0.837%포인트 올랐다. 'BBB-' 금리는 같은 기간 연 9.312%에서 연 10.143%까지 치솟았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보유 현금 215조… 주주환원·미래투자 드라이브

삼성전자, 현금 24.8조 늘어
연간 주주환원 90조~110조
남은 재원 55조~75조 예상
올해 84.4조 시설투자 계획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국내 기업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과 현금 창출력이 동시에 개선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주주환원과 미래 사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확보했다. 다만 막대한 자금력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총수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친 현금 자산은 214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190조원보다 24조 8000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8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도 197조 6000억원에 달한다.

늘어난 현금은 주주와 미래 사업에 동시에 투입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5조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연간 주주환원 규모가 90조~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재원은 55조~75조원이다. 추가 환원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시설투자 계획은 8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52조 7000억원보다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76조 8000억원이 반도체 부문에 집중된다. 메모리 신규 생산시설과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등에 투자해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연구개발(R&D) 투자도 공격적이다. 3분기까지 누적 연구개발비는 41조 7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인 37조 7000억원을 넘어섰다. 연간 50조원 돌파가 예상되면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합친 미래 투자 규모는 13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관건은 확보한 자금과 기술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경영 체제다. 이 회장은 반도체를 넘어 로봇과 전장, AI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미래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로봇 분야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RX(Robotics e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냉난방 공조(HVAC)와 전장 사업에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M&A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현대차, 경영진 총집결

오늘 더유니버스서 '감사 데이'
사장단·배우자 등 170명 참석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처음으로 그룹 차원의 경영진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양측의 협력이 배터리와 반도체, 전장부품 등 미래차 핵심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경영진이 직접 만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일 오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연수원 '더유니버스'에서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을 초청하는 '감사(Appreciation) 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배우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현대차그룹과 이어온 사업 협력에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공연 관람과 만찬 등 친목과 네트워킹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양측이 그룹 차원에서 공식 교류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에서는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에서도 장재훈 부회장과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기아 연구개발(R&D)본부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그룹은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 공급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제네시스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에 삼성SDI의 각형 배터리가 적용되면서 핵심 전동화 부품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용 반도체의 위탁생산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李정부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소멸기금"…내년도 예산 철회 촉구
▲노벨평화상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국회서 '2026 인터넷평화상' 수상 /사진 뉴시스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정치검찰 방탄 시위"·"李대통령 방탄 특검"
▲美 민주당 압승에 안철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마련해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청준비단 구성…12일 첫 출근
▲COP31 오늘 개막…韓, '2035년 전력 비중 35%' 국제서약 동참

엔비디아, 메모리시장 영향력 확대
삼성·SK 등 협력 방향성 이목집중

TSMC, D램 생산 검토설 선 그어
삼성. 첨단공정 기반 영역확장 기대
SK, TSMC 협력관계 활용 가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엔비디아가 차세대 메모리의 설계와 제조공정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엔비디아의 요청으로 메모리 시장 진출설이 제기된 TSMC는 기존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국내 메모리 업체들과의 협력 방향이 주목된다.

8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TSMC는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른 3차원(3D) D램 생산 검토설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TSMC 대변인은 "반도체 위탁생산이라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로직 반도체 산업에 기술과 생산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모리 생산 계획 자체를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미국 정보기술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을 인용해 TSMC가 엔비디아의 요청으로 3D D램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규 공장 건설과 기존 반도체 공장 인수·전환 등이 거론됐지만 투자 규모와 양산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 생산하면 'D램 전쟁' … 상용화까지 기술 장벽

TSMC가 메모리 생산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기존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3D D램은 기존 반도체 제조공정과 차이가 커 실제 양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D D램은 메모리 셀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로, 여러 개의 D램 칩을 적층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구조가 다르다. TSMC가 맡아온 HBM 베이스 다이 위탁생산과 달리 메모리 자체를 제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TSMC가 3D D램 생산에 나서려면 별도의 공정 기술과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메모리 셀의 결함을 줄이고 수율을 높이는 기술도 필요해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역시 3D D램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 활용 검토… 하이닉스는 TSMC 협력 강화

현재 TSMC는 메모리 직접 생산보다 기존 파운드리 사업을 통한 HBM 베이스 다이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베이스 다이 개발을 협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에도 TSMC 공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차세대 맞춤형 HBM인 'NVHBM'의 베이스 다이를 TSMC의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으로 생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스 다이는 HBM 하단에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반도체다.

지난 8월 공개된 NVHBM은 엔비디아의 메모리 컨트롤러를 베이스 다이에 통합한 제품이다. 엔비디아는 표준 HBM4E보다 대역폭을 최대 30% 높이고 전력 소비를 15%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4나노 공정으로 HBM4 베이스 다이를 생산해 왔으나 엔비디아용 NVHBM에는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른 고객사용 제품은 자체 생산을 유지하면서 엔비디아용 제품에 외부 공정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TSMC의 생산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파운드리에서도 NVHBM 베이스 다이를 생산할 수 있는지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체 공정과 외부 공정의 활용 범위가 향후 생산 전략의 변수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2024년 HBM4 베이스 다이 개발 협력을 발표했으며, 고객사별 AI 반도체 설계에 맞춘 맞춤형 HB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NVHBM에 3나노 공정을 적용할 구체적인 방식과 공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NVHBM에도 TSMC 공정이 적용되면 TSMC는 국내 양대 메모리 업체의 베이스 다이 생산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 반면 3D D램 직접 생산이 현실화하면 기존 협력사와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대만 반도체 애널리스트 댄 니스테트는 TSMC의 3D D램 생산 가능성과 관련해 로직 반도체와 D램의 제조공정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 통합과 제품 검증, 수율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D램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K-양극재, 수주행진에도 실적개선 가시밭길

3분기 실적 부진… 업황회복 안갯속
신규 수주물량, 매출반영까지 시간 필요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포항공장 조감도.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업황 회복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 물량이 매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미국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쳐 실적 개선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579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0.7%, 영업이익은 76.2% 줄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33.3% 감소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 감소했다. 북미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으로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가 부진한 영향이다.

엘앤에프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 26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앞서 사들인 원재료와 제품의 가치가 낮아져 재고평가손실이 생겼고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수익성까지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포스코퓨처엠은 3분기 영업이익이 8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에너지소재 부문의 고객사 보상금 등 일회성 수익과 기초소재 부문의 이익 개선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양극재 사업의 자체적인 수익성 회복은 제한적이었다.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극재 기업들은 전방 시장 변화에 대응해 신규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성장으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유럽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 배터리 3사를 대상으로 ESS용 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SK온과 1조742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10월에는 삼성SDI와 약 6조원 규모의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내년부터 7년간 72만톤 규모의 양·음극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포항 공장의 하이니켈 생산라인 일부를 LFP용으로 전환해 내년 초부터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엘앤에프도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LFP 양극재 고객사로 확보했다. 지난 2일 LG에너지솔루션과 2028년부터 4년간 약 1조350억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3월 삼성SDI, 9월 SK온과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공급처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9월 말 연산 3만톤 규모의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7년 상반기까지 생산능력을 6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금지외국기관(PFE) 요건 강화로 비중국산 소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LFP 공급망 확보 움직임이 양극재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ESS용 LFP 시장보다는 유럽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로부터 대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을 확보하면서 지난 8월 헝가리 공장의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생산라인을 니켈·코발트·망간(NCM) 겸용 라인으로 전환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내년 4분기부터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전압 미드니켈 등 제품군도 앞세워 유럽과 북미 배터리 업체 및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규 수주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라인 전환과 양산 준비를 거쳐 공급 물량이 매출에 반영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전방 배터리 업체들의 수주 상황과 정책 변화도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가 내년 이후 어떻게 바뀔지 확정되지 않아 양극재 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가 내년부터 어떻게 바뀔지 정해지지 않아 소재 업체들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업황 회복도 빨라야 2027년 말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AI규제 우려 확산… 160조 미래대응기금 '흔들'

美 중간선거 파장… 정부 세수입 변수
"연말 거래세 흐름 예측하기 어려워"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한국 정부의 재정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정부는 그간 반도체 업종 호황기를 반영해,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하에 세수입 운용 방안을 짜 왔다. 또 수출 증가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도 기대 요인으로 두고, 증권거래세수의 견조한 증가세를 예측했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추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는 방침을 2026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미국 입장이 종전의 적극 독려에서 규제 일변도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 기업의 반도체 수출 및 영업이익이 동시에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국세수입은 AI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호황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세수입은 385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5조4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51조9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7조5000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10조3000억 원 각각 늘었다. 3개 주요 세목의 증가액은 총 69조7000억 원으로, 총 국세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1%를 기록했다.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올해 9월까지 법인세 비중은 127조8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33.2%였다. 작년 1~9월 기록한 26.2%보다 7.0%포인트(p)나 올랐다.

이 같은 세수 호조는 정부가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기반이 됐다.

정부는 올해 3%대 성장을 전제로 연간 국세수입이 47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 415조4000억 원에 비해 63조2000억 원 많은 규모다.

내년에도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면서 세수입이 58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바탕으로, 추가 세수 160조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정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에 쌓을 재원이 줄어든다. 신규 사업에 투입할 여력도 제약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올해 연말 거래세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거래대금이 (유독) 높은 수준이었다"며 "남은 기간 변동성이 커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내년 초 차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 계획"

›› 1면 '보유 현금 215조…'서 계속

그러나 삼성전자가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차세대 산업에서 시장을 선점하려면 투자 결정과 사업 실행을 뒷받침할 조직 역량 확보는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협업과 신사업 의사결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경영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과급 갈등 등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4세 승계 포기를 선언한 이후 장기적인 지배구조와 책임경영 체제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막대한 현금이 삼성의 다음 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방향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재용 체제의 경쟁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기록적인 AI 투자의 장기화와 반도체 공급제약으로 반도체 업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차기 주주환원 정책과 올해 잔여 재원의 최종 주주환원 규모 및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기관 외면에 회사채 차환 막막… 건설·석화 자금난 '비상'



내년 1~2월 회사채 만기가 역대 최대 규모로 몰리면서 건설·석유화학 등 비우량 기업들의 차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기업 돈맥경화

A사는 차환용 회사채 발행을 타진하다 낭패를 봤다. 최근 국내 한 중소형 증권사와 주관계약을 체결했다가 한 달이 넘도록 인수단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팔리지도 않을 물량을 떠안았다가 자칫 평가손실을 우려한 증권사들이 손사래를 쳤던 것. 회사채 발행을 미루자니 미국 등 글로벌 각국의 금리 인상이 걱정이다. 시장 금리가 다시 뛸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까지 기준 금리를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다. 이 회사 L 임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석유화학 등 취약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내년 회사채 '만기폭탄'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회사채 시장에서 기관들의 푸대접으로 차환용 신규 발행이 여의치 않다. 미국 등 글로벌 중앙은행이 긴축에 나서고 있어 회사채 발행에 성공한다 해도 감당해야 할 빚의 무게(발행금리)는 더 늘어난다.

글로벌 긴축에 조달금리 상승 압박
차환 성공해도 이자비용 부담 가중
국고채 공급 확대로 금리 상승 우려
기업 자금조달 위축에 투자도 차질

◆고금리 부채 청구서 날아든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보증 회사채는 72조3000억원 규모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좌불안석이다. 단순히 빚이 많아서가 아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유로존·일본 등 주요 10개 통화권(G10) 중앙은행들은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 모두 16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인상 폭을 합하면 4.00%포인트에 달한다. 특히 9월에는 6개 중앙은행이 총 1.50%포인트를 올렸다. 2023년 6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인상 규모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불러온 물가 상승 압력까지 겹치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더 커졌다. 특히 세계의 시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적시에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고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한국은행이 11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른 주요국보다 금리 인상 기조를 일찍 잡아 시간을 벌고 비용을 아꼈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발행금리가 높아지면 기업 이자비용 부담은 커진다. 그만큼 한계기업은 자금조달이 힘들어지고 건전한 기업활동도 위축돼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 미국은 국채 대신 회사채 투자로 이동하고 있지만 한국은 갈 길이 멀다.

크레딧 시장 한 관계자는 "단기 금리 대비 회사채 조달 코스트가 높아 회사채 발행 수요는 크지 않다. 은행을 찾는 기업들이 더 많다"면서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회사채 투자 수요도 좋지 않아 발행 스프레드가 확대될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하반기를 지나 내년 연초에는 절대금리 메리트보다 연초 채권 자금 유입에 따른 회사채 투자 수요로 발행 스프레드 축소 기대감이 오르고, 그나마 발행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더욱이 금리상승기에 국고채 공급물량까지 늘어 금리상승을 더 압박하게 됐다.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국고채와 주요 정부보증채 규모는 총 283조975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272조7650억원보다 11조2100억원(4.1%) 늘어난 수치다.

우량·비우량 기업 자금조달 양극화
BBB급 이하 회사채 발행시장 급랭
신용등급 하락에 자금조달 악순환
한계기업 늘면 금융시장 불안 확산

◆고금리 '뉴노멀'… 멀쩡한 기업도 돈 걱정

"돈 구할 곳 없는 기업들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일부 우량 대기업들을 제외한 중소·중견 기업은 회사채를 제때 갚지 못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겠는가."(재계 자금담당 임원 B씨)

기업 자금조달 업무를 지원하는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이 한겨울은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중견·중소 기업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낮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SK·현대차·LG 등 상당수 대기업의 경우 곳간이 든든해 걱정이 덜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0대 그룹 대표 계열사의 상반기 연결 기준 잉여현금흐름 합계는 186조8155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10조3875억원 대비 약 18배 늘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이곳엔 증권사 직원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중견 제조업체 자금담당 C전무는 "지금껏 돌아온 빚은 근근이 막았지만 앞으로 돌아올 만기를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실제 지난 8~10월 사이 이랜드월드 외에 'BBB' 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은 없었다. 올해 전체로 봐도 공모채 수요예측에 나선 기업은 10곳에 그쳤다. 최근 5년래 최악의 혹한기다. 발행액도 610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30억원) 대비 68.4% 줄었다.

실적부진에 신용 강등 우려까지 커진 기업들의 고민은 더 크다. '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금리 상승→투자 어려움→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투자자 인식과 등급 간 괴리를 줄여 등급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차환발행이 여의치 않은 기업은 자산유동화 등 대체조달 수단을 모색해야 하는데 비우량 등급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좀비기업으로 낙인 찍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최악은 과도한 빚이 좀비기업을 낳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위기로 취약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할 경우 금융시장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채로 세운 AI에 버블론이 불거지자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좀비 기업이 늘면 경제에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의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은 0.14~0.18%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부정적 효과는 2~3년간 이어졌다. 한은은 "한계기업이 자금·인력·거래처를 묶어두면서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까지 떨어뜨리는 '혼잡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정책 우려 비해 과도한 조정… 美 불확실성 완화 때 반등”

NH투자·메리츠·대신·삼성·토스 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의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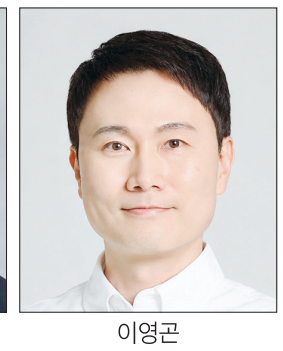
정책 공포에 투자 포지션 청산 겹쳐
AIDC 건설 원천 차단 유인 제한적
삼성·SK, 악재 선반영 극단적 저평가
외국인 수급, 금리, 유가 등 ‘변수’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

“1만피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본전만 돌아와도 감지덕지일 것 같아요.”

코스피 1만 시대를 꿈꾸던 투자자들의 기대가 본전 회복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인 ‘블루웨이브’ 충격에 코스피는 이틀 새 약 11% 급락했다. 지난 6일에는 장중 5000선마저 무너지며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4000대로 밀려났다. 불과 다섯 달 전 9000선을 넘나들던 지수는 장중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내려앉았다.

8일 메트로신문이 NH투자·메리츠·대신·삼성·토스증권 등 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들은 AI 투자 둔화 우려에 비해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중단되기보다는 속도와 지역이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가격이 싸졌다는 평가와 바닥 확인은 구분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책 방향과 빅테크 투자계획, 외국인 수급을 반등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 정책 공포에 청산 매물까지…“AI 투자 총량 훼손은 제한적”

센터장들은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금리 부담이 쌓인 상황에서 규제 우려가 매도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급락은 하나의 요인보다는 여러 악재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도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부담에 투자 포지션 청산까지 겹쳤다는 설명이다.



미국 인공지능(AI) 관련주 급락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에 코스피와 주요 종목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나스닥지수의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과 변동성지수(VIX) 급등에 따른 알고리즘 매도, 헤지펀드 청산 등이 낙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증시의 반도체 집중도도 충격을 확대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업체보다 메모리·장비 공급업체의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큰 한국에서는 전력기기 등 관련 수혜 업종까지 동반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데이터센터 신규 투자 속도의 둔화가 메모리 수요 하향 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가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둔화가 메모리 주문 감소와 재고 증가, 공급과잉 및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AI 투자 방향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봤다. 조수홍 본부장은 “민주당도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는 찬성하는 만큼 AI 발전의 토대인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 차단할 유인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건설이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 메모리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실적 없는 닷컴버블과 다르다”…저평가와 바닥 확인은 별개

닷컴버블 당시와 달리 현재는 실제 이익을 내는 기업의 실적 지속 가능성을 시장이 의심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진우 센터장은 “닷컴버블 당시에는 기업들이 실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미래에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상승했다”며 “반면 현재는 기업들이 실제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시장이 그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빅테크가 기존 사업에서 창출한 이익과 현금으로 AI 투자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당시와 다르다고 봤다. 다만 안정적인 기존 사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 악화까지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윤석모 센터장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에 해당하는 지수를 5150으로 제시했다. 이를 밑도는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형주의 2027~2028년 대규모 감익 시나리오까지 선반영한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양지환 센터장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PBR의 관계를 적용하면 현재 코스피가 향후 12개월 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38~49% 적게 나오는 상황까지 반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진우 센터장 역시 현재 낙폭을 정당화하려면 실물경제 위기와 같은 문제가 동반돼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양지환 센터장은 “AI 밸류체인 비중이 높았던 헤지펀드들의 손절매와 펀드 청산 등 수급적인 위협 요인은 아직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급을 제외하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진우 센터장도 여러 악재가 누적된 만큼 단번에 회복되기보다는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 지연 여부,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 반등 열쇠는 빅테크 투자·외국인…“손실 만회용 레버리지 경계”

추세 반등의 조건으로는 미국발 불확실성 완화가 우선 꼽혔다. 국내 반도체 실적과 밀접한 빅테크의 투자계획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우 센터장은 “반등의 조건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넘어 추세적으로 회복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와 국제유가는 충격을 완충할 변수로 거론됐다. 조수홍 본부장은 민주당 지도부의 이란 전쟁 종식 요구가 본격화하고 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안정되면 AI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과 잉여현금흐름(FCF) 적자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지환 센터장도 시장이 투자 지연 위험에 집중하면서 조달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 대응에서는 현금 확보와 분할 접근에 무게가 실렸다. 양지환 센터장은 “현 시점에서 대응은 매도 동참보다는 기다리는 전략, 현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신중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영곤 센터장은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손실 만회를 위해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레버리지를 높이는 대응은 경계했다. /허정윤·신하은·김아영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국민연금, 반도체 급락에 수익률 ‘빨간불’

기금 평가액 1866조 → 1684조
삼성·SK 평가액 감소분, 전체 72%

국내 증시 급락으로 반도체 대형주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하반기 운용 성과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삼성전자는 43.50% 하락하며 18만8700원까지 떨어졌다. SK하이닉스는 57.28% 급락했다. 상반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 성과를 끌어올렸던 반도체주가 급락한 만큼, 하반기 성과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기금 평가액이 약 1866조원에서 1684조원으로 182조원가량 줄어들었다.

더불어 기금 전체의 연초 이후 누적 운용수익률은 14.7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월별 누적 수익률은 6월 말 27.22%를 기록했지만 증시가 급락했던 7월 14.84%까지 떨어졌다. 8월 들어서는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누적 수익률은 오히려 소폭 낮아진 모습이다.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19.9%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하반기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9월 들어 현재까지 코스피가 25.81% 하락한 만큼 급락장의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6월 30일과 10월 15일 기준 지분 5% 이상을 보유해 공시한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10월 15일 기준 333조533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 515조9293억원과 비교하면 약 182조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가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두 종목의 평가액 감소분은 총 131조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71.8%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올해와 내년 모두 20.8%로 설정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중장기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처럼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금 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주가 흐름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와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글로벌 기술주 조정과 AI 투자 수익성 논란 등 대외 악재가 투자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기업 실적이 견조하더라도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주가 하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1.0배 초중반 수준까지 낮아졌고, 이는 데이터센터 산업이 없던 시절의 주가 하단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시장이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 가능성마저 부정하는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만큼, 악재를 끝까지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주가 레벨 자체는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하지만, 당분간 위아래로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젠슨 황 中 스파이 접촉설’로 번진 기술전쟁

메디슨 황, 방한 일정 돌연 취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가까운 관계를 맺은 중국 국적 여성 엘리스 황이 중국 정부를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넷선더 링크드인 캡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임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으로 미국 정치권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 여파로 젠슨 황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의 한국 방문 계획도 돌연 취소됐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젠슨 황 CEO에 서한을 보내 오는 18일 브리핑 참석을 요구했다. 참석 여부나 대체 일정은 11일까지 회신하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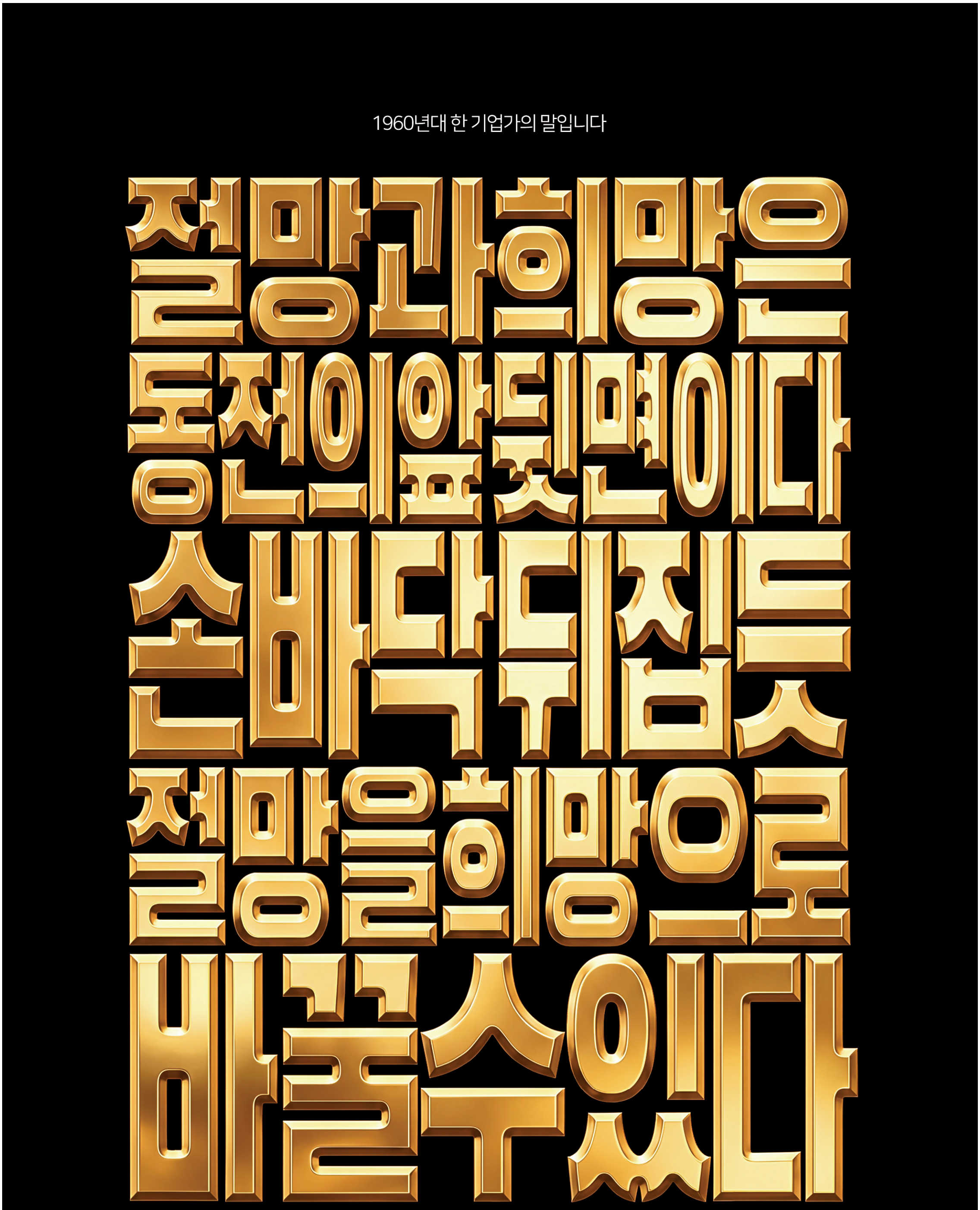
이번 사안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 앨리스 황을 둘러싼 의혹에서 비롯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앨리스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포섭돼 엔비디아의 사업·기술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이 연인 관계였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으나, 두 사람의 관계와 정보 유출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젠슨 황의 스캔들이 터진 뒤 그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이사도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젠슨 황을 둘러싼 의혹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맞물려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수출 허가와 최종 사용자 확인을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을 통한 우회 공급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최종 사용자와 제품 사용 목적, 재수출 여부 등에 대한 거래처 검증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뉴시스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젊은 날의 꿈은
모두 이루어졌다
오늘 다시 젊은
날의 꿈으로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與 '세수부족 대비' 野 '전면철회'… 162조 미래대응기금 격돌

예결위, 오늘부터 부별심사

민주 "미래투자·경기침체 대비 미래기금, 민생 위한 재정 저수지" 국힘 "여유자금, 국회통제 어려워 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 악화"



국무위원 등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오는 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투자와 세수 부족에 대비할 재원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와 지방재정 위축을 우려하며 기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약 12.8%) 증가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금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기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자금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민생을 지켜주는 '재정 저수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30조원 규모의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라며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에 대한 국회 통제도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울뿐더러, 기금 조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반드시 끝장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튜브도, 어디도 좋다"며 "대통령이 자신 없으면 정책실장이든 장관이든 데리고 나와서 싸워도 된다. 전 혼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금이 실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제가 납득할 수 있으면, 국민께서 납득하시면 이 예산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액 삭감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100조원이나 되는 돈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며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뭐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현행법에 따라 지급돼야 할 63조원이 내년에 각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간다"며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부별심사를 마친 뒤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장동혁 "李 대통령, '탄핵말이'가 답" 장외투쟁 여론전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

지도부·의원 등 70여명 규탄대회 오늘 청와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내일 현장 의원총회 등 투쟁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서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도심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재개를 요구했고, 당은 청와대 앞 현장 회의 등 후속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민생보다 지지층 결집을 앞세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소속 의원 7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일 특검법 통과에 반발해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서울 한복판으로 투쟁 무대를 넓혔다.

장 대표는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말이'가 답"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당장 재판 재개해서 감옥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에도 논평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방탄 입법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1인 시위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특검법 처리를 막지 못한 만큼 장외투쟁을 통해 반대 여론을 모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행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민생보다 지지층 결집을 앞세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대해 "과거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음에도 국민의힘은 왜곡된 사실과 억지 주장을 명분 삼아 기어이 장외집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탄핵 공세가 지지층 결집과 정국 주도권 확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도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당의 강성 이미지가 실제 호응을 얻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 대표의 탄핵 발언에 대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 국회 구성상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 교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특검법 논란과 연결해 중도층까지 결집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너무 강성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소방재정 국비 늘리고 지역 간 편차 줄여야"

당정청, 주요 민생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만나 소방예산 확충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후속 조치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김민석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날 안건으로 오른 소방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4개 소방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심, 또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고위당정의 두 번째 안건인 재난·재해 예방에 대해선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서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정무수석비서관에 최인호 내정… 靑 2기 인선 속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내정한 가운데 일부 비서관들에 대한 추가 교체 등 2기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8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청와대를 떠난다"며 "이제 국정상황실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6대 조달청장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국정상황실장은 국가정보원·경찰 등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후임으로는 김태근 현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이 내정됐다. 새 상황실장으로 대통령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합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보직 이동 인선이 이뤄진 셈이다. 강원 횡성 출신인 김 비서관은 주로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이다.

국정상황실장 외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도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초부터 근무해온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과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사의 표명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뉴시스

긍정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AI시대를 알고 기다는
도전이 아닌 이다
있는 그 자체로
소비자 중심
모두가 기대는
일상이 되는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SK

韓 수출로 벌고, 日 투자로 번다… 경상흑자 방정식 이원화

韓, 8월 상품수지 468억 弗 흑자
총 461억 弗 경상흑자 기록
9월 경상흑자 615억 弗 역대최대
日, 본원소득수지 5조 엔 흑자 기반
전체 경상수지 4조 엔 흑자 기록



상품수출이 경상흑자를 이끄는 한국과 해외투자소득으로 상품·서비스 적자를 메우는 일본의 경제구조. /Chat GPT 생성 이미지

한국이 상품수출로 사상 최대 경상흑자를 낸 가운데 일본은 해외에 축적한 자산에서 얻는 소득으로 상품·서비스 적자를 메우고 있다. 다만 해외투자소득에는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현지 유보이익도 포함돼, 소득흑자가 늘어도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는 그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 韓 상품흑자, 日은 해외소득이 버팀목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의 9월 경상수지는 614억6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가 627억5000만달러로 전체 흑자를 이끌었다.

김영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지난 5일 설명회에서 "9월 상품수지가 견조한 상품 수출에 분기 말 효과가 더해지면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모두 발표한 8월 국제수지로 비교하면 흑자를 만드는 원천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은 상품수지에서 468억1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461억1000만달러의 경상흑자를 기록했다. 투자소득과 급료·임금을 합한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9억2000만달러였다.

반면 일본은 상품수지에서 6877억엔 적자를 냈고 서비스수지도 적자였다. 그러나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이 주축인 본원소득수지에서 5조1332억엔 흑자를 거두면서 전체 경상수지는 4조62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 거래에서 벌어들인 흑자가 중심인 한국과 달리,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지난 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강연에서 "해외투자에서 얻는 순소득이 일본 경상흑자의 주된 원천이 됐다"고 진단했다.

◆ 해외투자가 낳은 이익

우에다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일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과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짚었다.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부채 상환을 우선하면서 국내투자가 장기간 위축됐고, 재무구조 개선이 진전된 뒤에도 기업저축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직접투자로 향했다. 우에다는 2012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증권투자를 넘어 일본 자본유출의 주된 통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설립하거나 인수한 자회사 등이 이익을 내면서 투자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이 일본의 경상흑자를 떠받치게 된 것이다.

다만 해외자회사가 번 이익이 모두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에다는 해외자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이 현지에 유보·재투자되면서 일본의 본원소득 흑자를 늘리고, 동시에 해외직접투자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투자소득에 배당금뿐 아니라 모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현지 유보이익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배당하지 않고 남긴 이익은 소득으로 계상되는 동시에 금융계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자산의 증가로 기록된다. 이러한 '재투자수익'은 실제 송금이 없어도 투자소득에 잡힌다.

◆ 한국은 배당 환류 확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소득을 볼 때는 현지에 남기는 몫이 줄고 배당하는 몫이 커졌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신상호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과 이주현 조사역이 지난 6월 발표한 BOK 이슈노트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소득수입 중 재투자수익의 비중은 2010~2022년 평균 48.4%에서 2024~2025년 평균 약 25%로 낮아졌다. 연구진은 2023년 세제조치 이후 해외자회사 배당의 국내 환류가 확대된 결과로 설명했다.

해외자산 축적은 미래 투자소득을 늘리고 대외지급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다만 그 소득이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는 배당과 현지 유보, 실제 송금·환전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 해외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는 외화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 자산에서 얻은 배당·이자를 국내에 들여와 원화로 바꾸면 외화 공급이 늘 수 있다. 현지 유보이익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배당 비중이 높아졌더라도 그 금액이 모두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됐다는 뜻은 아니다.

신 과장과 이 조사역은 보고서에서 "투자소득이 실제 국내 외환공급으로 얼마나 환류되는지를 중심으로 외환수급 점검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2금융권, 4%대 예금금리로 자금이탈 방어

저축은행, 예금상품 313개 중
연 4% 이상 상품 125개 40% 차지
신협, 총 131개 상품 금리 4% 이상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4%대 고금리 예금 상품이 급증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자 제2금융권이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연말 만기 적금 시기까지 도래하면서 예금 금리 상승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8일 저축은행중앙회 상품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 313개 중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125개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이 중 금리가 연 4%인 상품은 45개, 4%를 초과하는 상품은 80개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은 최근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연 4%를 초과하는 예금 상품은 지난 7월 1일 107개에서 8월 1일 33개로 급감한 데 이어 9월과 10월에는 각각 5개까지 줄었다. 그러다 이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한 달 새 16배나 확대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87%다. 전월(3.77%)과 비교하면 0.1%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3.7%대에 머물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달 중순 3.8%대로 올라선 이후 현재까지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인 신협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연 최대 4% 이상 예금 상품은 이날 기준 총 131개다. 최고 4.30%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동암신용협동조합의 한아름정기예탁, 효천신용협동조합의 유니온정기예탁 상품이 대표적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예금 확대에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행렬이 자리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면서 저축은행과 신협 등에서도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금융권이 시중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을 막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말 예·적금 만기 시기가 도래하는 점도 금리 인상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으로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기 2~3개월 전부터 자금 확보에 나선다. 연말과 연초 만기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현재 선제적으로 수신 자금을 늘릴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예금 확대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연 4% 이상 정기예금 상품은 31개 수준에 그쳤다. 올해 가계대출 순증 목표치가 0%로 설정되면서 대출을 통한 자금 운용이 제한된 데다, 건전성 관리 부담까지 겹쳐 적극적인 수신 확대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자금을 무리하게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전성 문제로 대손비용이 생겨서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출을 못 하는 상황에서 수신을 늘리면 이 역시 비용이다"라며 "금고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지도 방향을 무리한 수신은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리은행 '대한천일은행' 역사 재조명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학술대회

우리은행이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를 되짚고 근대 금융 환경 속에서의 역할을 조명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대한천일은행의 민족자본 형성과 회계장부의 학술 가치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를 되짚고, 근대 금융 환경 속에서 은행이 수행한 역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은 지난 1899년 대한제국 시기 상인과 관료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민족자본 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은행이 소장한 대한천일은행 사료를 바탕으로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은행사 편찬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근대사·경제사 전문가들의 분석과 학술적 해석으로 금융사 연구의 깊이를 더한다는 취지에서다.



'송도사개치부법'으로 작성된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 /우리은행

지난 6일 열린 학술대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1부 '근대 민족 경제 형성과 대한천일은행의 설립' ▲제2부 '대한천일은행의 민족자본 형성' ▲제3부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의 역사적 의의' 등 3개 주제로 총 8편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개성상인들이 사용한 우리 고유의 복식 부기 방식인 '송도사개치부법'으로 작성된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의 사료적 가치가 집중 조명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위, 25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최

서울 양재 aT센터서 3일간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미래 금융산업의 전망을 논의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이 오는 25일부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며, '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됐다(Beyond Finance, Into the Future)'를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총 36개 세부 프로그램과 115개 전시 부스에 140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전시관은 ▲핀테크관(72개 부스) ▲금융관(8개 부스) ▲글로벌관(23개 부스) ▲협력관(12개 부스)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금융관에는 6개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와 IBK기업은행, 삼성카드가 참여해 AI 기반 금융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관에는 미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국가별 핀테크 기술을 비교 및 전시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입장·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KB리브모바일, 부산 청년 소상공인 지원

매장 18곳 성정 키오스크 설치

KB국민은행은 알뜰폰 브랜드 'KB리브모바일(KB LiivM)'이 동반성장위원회,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지역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2차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1차 지원에 이어 청년 소상공인의 스마트 매장 구축을 지원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B리브모바일은 지난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 1억원을 기부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및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지역 청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부산광역시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18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키오스크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매장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설치 전 컨설팅부터 초기 설정,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이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글로벌 디스플레이 투자 감소 전망
삼성·LG, 차세대 OLED 역량 집중

글로벌업체, 대규모 설비투자 마무리
국내업체, IT용 OLED 경쟁력 강화
"수요·수익성 중심 선별투자 가능성"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 규모가 내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주요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7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액이 전년 대비 49% 감소한 약 5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투자액은 전년보다 61% 증가한 108억달러로 추산됐다.

올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8.6세대급 IT용 OLED 생산시설 투자가 집중되면서 장비 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반면 2027년에는 주요 생산시설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신규 장비 투자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도 변수로 꼽힌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 3분기 D램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상승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일부 6세대 디스플레이 신기술 투자도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A7 공장 건설을 재개하며 차세대 OLED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A7 공장은 2021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26년 8월 건설이 재개됐다.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생산장비 발주가 시작되고 2028년 장비 반입을 거쳐 2029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에 4조1000억원을 투입해 월 1만5000장 규모의 8.6세대 IT용 OLED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7월 양산을 시작했다. 8.6세대 OLED는 기존 6세대보다 유리 원장 면적이 약 2.25배 커 노트북과 태블릿 등 중형 패널 생산에 유리하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 AP5 생산라인에 1조1060억원 규모의 OLED 신기술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OLED 기술 개발과 향후 양산에 필요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다.

차세대 OLED 제조 기술인 '플립(FLiPP)' 개발도 추진 중이다. 플립은 미세금속마스크(FMM) 대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으로 화소를 형성하는 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기술 설명회에서 기존 FMM 방식보다 증착 공정 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체들이 IT용 OLED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노트북용 OLED 시장의 성장 전망이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26년 글로벌 노트북용 디스플레이 전체 출하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하는 반면 OLED 패널 출하량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 노트북용 OLED 출하량도 전년 대비 2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업체들도 IT용 OLED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BOE는 2026년 6월 8.6세대 IT용 OLED 양산을 시작했고 비전옥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중국의 OLED 생산능력 점유율이 2029년 한국을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향후 투자는 신규 생산능력 확대보다 수요와 수익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업체들도 IT용 OLED 등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시설과 차세대 공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전자, 차량 통신제어 모듈 'ASIL D' 인증

〈ISO 26262 최고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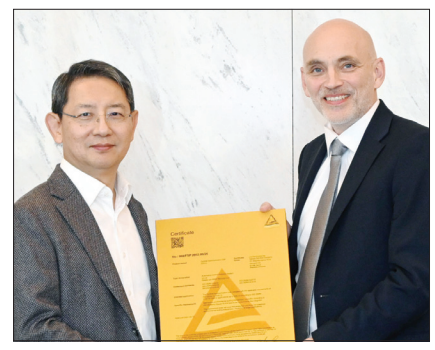
글로벌 완성차 대상 전장사업 확대

LG전자가 차량 통신제어 모듈 분야에서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LG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차량 통신제어 모듈에 대해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 ISO 26262의 최고 등급인 'ASIL D'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차량 통신제어 모듈이 해당 등급을 받은 것은 2026년 11월 TUV 라인란드 인증 기준 업계 최초다.

차량 통신제어 모듈은 차량 내부의 여러 전자제어장치(ECU)를 연결해 차량 상태 정보와 제어 명령 등을 전달하는 장치다. 외부 통신망과도 연결돼 원격제어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동과 조향 등 주행 안전과 관련된 제어 신호도 처리하는 만큼 오류나 고장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능안전 기술이 중요하다. LG전자는 제품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구현, 기능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ISO 26262의 요구 기준을 충족했다. ISO 26262는 차량 전기·전자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표준이다. ASIL은 사고의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 운전자의 위험 상황 제어 가능성 등을 고려해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최고 등급인 D는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부품이나 시스템에 적용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장을 1억 시간당 1회 이하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이다.


LG전자가 차량 통신제어 모듈로 자동차 기능안전 최고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차량 통신제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5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왼쪽부터)LG전자 VS연구소장 이상용 부사장, TUV 라인란드 스벤 노박(Sven Nowak) 기능안전·사이버보안 글로벌 부사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이번 인증을 받은 모듈은 제네시스의 초대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에 탑재됐다. LG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통신 솔루션을 비롯한 전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VS연구소장 이상용부사장은 "AIDV 전환을 위한핵심모빌리티기술인 차량통신제어모듈을비롯한전장제품의기능안전기술을지속고도화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롯데케미칼, 범용설비 축소… 수익성 개선 기대

3분기 대비 4분기 영업손실 감소 전망
내년 실적, 여수 사업재편 성과에 달려

롯데케미칼이 3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내년 여수 사업재편과 고부가 라인 가동이 실적 반등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용 설비를 덜어낸 효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4분기 영업손실은 3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에 몰렸던 역래깅(원료 매입 시점과 판매 시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손실) 등 일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적자를 내던 대산공장이 통합법인으로 넘어가 4분기부터 롯데케미칼 실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4분기에는 3분기 15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첨단소재 부문 주요 제품 판매량이 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배터리 소재 자회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수요 확대, 말레이시아 신규 라인 가동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내년 실적 개선의 관건으로 여수 사업재편을 꼽는다. 여수공장은 물적분할을 거쳐 내년 상반기 여천NCC와 통합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대산에 이어 여수공장까지 연결 대상에서 빠지면 수익성 개선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첨단소재 부문은 연간 50만톤 규모의 율촌 컴파운딩 공장에 내년 1분기 고부가 제품 전용 라인을 추가한다. 롯데케미칼은 가동률이 70%대에 머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크래커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유화학 시황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인 기초화학 부문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회복 지연으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산과 여수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능력이 줄더라도 내년 울산에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국내 공급 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산에 이어 여수까지 범용 설비 정리가 마무리되면 손실 구조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샤힌 가동 등으로 시황 자체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고부가 사업이 얼마나 빨리 이익을 내느냐가 실적 반등 속도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BMW 더 뉴 BMW iX3.

멀리 가고 빨리 충전… 전기차 경제성 'UP'

YG의 카톡 car talk

BMW '더 뉴 BMW iX3'

실제 전력소비 효율·충전 편의성 발군

전기차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는 1회 충전 주행거리만이 아니다. 같은 전력으로 얼마나 멀리 달릴 수 있는지, 충전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BMW코리아가 국내 출시한 신형 전기차 '더 뉴 BMW iX3'는 장거리 실주행에서 이러한 경쟁력을 확인시켰다. 서울에서 전남 해남까지 약 380㎞를 달리는 동안 1kWh당 6.8㎞의 전비를 기록했다. 국내 인증 복합 전비인 4.8~4.9㎞/kWh보다 약 40% 높은 수치다.

시승은 서울역 인근 BMW 차징 허브 라운지를 출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위치한 파인비치까지 이어졌다. 도심과 고속도로, 지방 국도 등 다양한 도로 환경을 거치며 실제 전력 소비 효율을 확인하는 일정이었다. 시승을 진행하면서 냉난방을 사용하고 전자기기 등을 충전했지만 총 소비 전력은 56.9kWh로 높지 않았다.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 주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효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주행 질감 역시 효율성 못지않게 안정적이었다. 전기차 특유의 급격한 가속 성능에 따른 울컥거림은 느껴지지 않았고 가·감속시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주행감을 제공했다. 특히 첨단 주행보조 기능은 장거리 주행시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일정 속도와 차선,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보조 기능(ADAS)은 차량이 주행 상황을 판단해 시스템을 운영했다.

iX3의 주행 성능은 최고출력 469마력, 최대토크 65.8kg·m를 발휘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4.9초 만에 도달한다. 충전 성능도 매력적이다. BMW 최초의 800V 고전압 아키텍처를 적용해 최대 350~400kW급 초급속 충전을 지원한다. 초급속 충전기 이용 시 10분 충전으로 약 250㎞를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22분이 걸린다.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611㎞다.

이번 시승은 전기차 경쟁의 무게중심이 단순한 주행거리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과 충전 편의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형 iX3는 국내에서 50 xDrive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SE 7990만원, M 스포츠 8760만~8780만원, M 스포츠 프로 928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24일 'Dreams that Resonate'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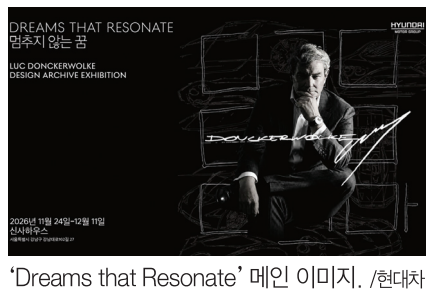
현대차·기아, 동커볼케 사장 철학 조명

"한 사람의 꿈이 현실이 되고, 다시 모두의 꿈이 되는 시간"

현대자동차·기아가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사장의 창의적 여정과 디자인 철학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연다. 현대차그룹의 디자인 경쟁력을 이끌어 온 인물의 작업 과정과 성장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해 브랜드 디자인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하우스에서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Dreams that Resonate(멈추지 않는 꿈)'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기아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 겸 최고디자인책임자(CDO)인 동커볼케 사장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기록과 주요 디자인 작업물을 선보인다. 전시는 추상적인 디자인 철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과정이 담긴 기록과 결과물을 통해 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Dreams that Resonate' 메인 이미지. /현대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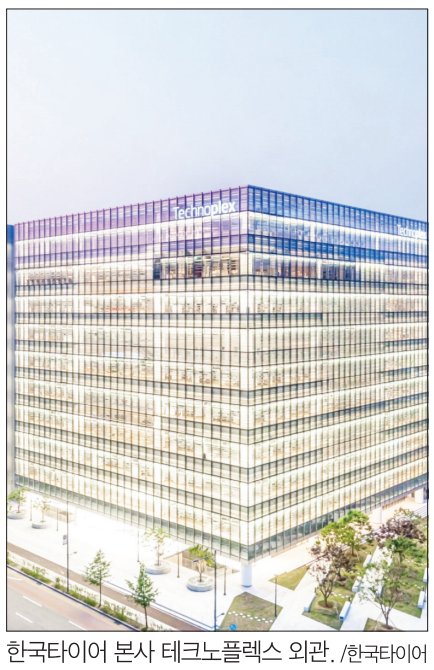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타이어 3사, 매출 늘어도 수익성 희비… 고부가 제품으로 돌파

한국타이어, 최대 매출에도 수익 주춤
금호타이어, 북미·유럽 호조에 선전
넥센타이어, 원가 상승에 실적 급감

고인치·전기차용 제품 비중 확대
해외 생산기지 확충해 관세 대응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한국타이어

국내 타이어 3사가 올해 3분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수익성에서는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해외 생산거점 재편으로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8일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는 올해 3분기 고인치·전기차용 타이어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금호타이어가 증가한 반면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부문과 넥센타이어는 감소했다.

한국타이어는 3분기 타이어 부문 매출 2조8083억원, 영업이익 50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7%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2.6% 감소했다.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이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호타이어는 매출 1조2374억원, 영업이익 130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 북미와 유럽에서 신차용(OE)·교체용(RE) 타이어 판매가 확대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넥센타이어는 매출 81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81억원으로 61.1% 감소했다. 원재료 가격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매출원가율이 74.0%로 높아졌고 원화 강세도 수익성에 부담을 줬다.

세 회사 모두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비용 상승을 흡수하는 데는 차이를 보였다. 각사 발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1~9월 누적 18인치 이상 고인치 제품 비중은 각각 49.4%, 47.0%다. 넥센타이어의 3분기 고인치 타이어 매출 비중은 41.5%다. 한국타이어는 프리미엄 완성차 공급을 확대했고 금호타이어는 고인치 제품 비중의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넥센타이어도 올웨더·겨울용 타이어 판매를 늘리고 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중국산 승용차·경상용차 타이어에 4.3~45.3%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오는 12월 상계관세 조사 결과도 예정돼 있어 중국 생산물량의 유럽 수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생산거점에 따른 대응 여력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공장과 헝가리공장 증설을 추진하며 북미·유럽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현지 생산능력을 높여 수요 변화와 관세 부담에 대응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함평공장과 유럽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현지 생산거점이 아직 없는 만큼 신규 공장 가동 전까지 공급망 운영이 중요하다. 넥센타이어는 체코공장을 유럽 현지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3분기 유럽 매출은 349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올웨더·겨울용 타이어와 고인치 제품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개선하고 글로벌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익성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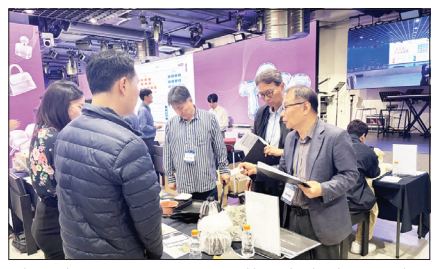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한유원
유망 소상공인 30곳 선정

팝업스토어·방송 PPL 등 지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TOPS 프로그램' 3단계에 진출할 소상공인 30개사를 선발했다. 8일 한유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TOPS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지원하는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다. TOPS 프로그램은 3단계에 걸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관련 프로그램은 올해 4월 소상공인 3500개사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을 시작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 700사를 선별해 2단계 지원을 끝냈다. 이후 3단계에 진출할 소상공인 선별 품평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30개를 최종 선정했다. 30개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국내·외 팝업스토어, 방송 PPL 등 스케일업을 위한 플랫폼별 3단계 지원을 차례로 받을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9일에는 서울 상암동에서 'TOPS 커넥트데이'도 개최해 TOPS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3단계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및 구매상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한유원은 'TOPS 프로그램' 3단계 진출 소상공인을 선정하기위해 품평회를 진행했다. /한유원

2030년까지 제조현장 AI 전문인력 6만명 키운다

중진공, 안산 제조AI 교육센터 개소
현장 맞춤형 AI 전문인력 육성
중소기업 AX 전환·경쟁력 강화


6일(금)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4번째)이 미래인재 양성 비전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2030년까지 중소벤처 제조현장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전문인력 6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경기 안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제조AI 교육센터도 처음 문을 열었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미래인재 양성 비전선포식'을 갖고 AI 시대 중소벤처기업 인재양성을 이끌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AX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배움터'를 연수원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AI 전문인력 6만명 양성을 목표로 ▲AX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현장중심 직무역량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한 '3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메인비즈협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연수 참여기업 대표·재직자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진공은 1982년 당시 안산에 처음 개원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에 강원연수원(태백), 충청연수원(천안), 호남연수원(광주), 대구경북연수원(경산), 부산경남연수원(창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AI 전문인력 양성은 안산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 여부도 모색할 계획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현장맞춤형 AI인재를 키워 중소기업의 자립적 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데이터 자산화와 업무공정 지능화를 통해 AX 대전환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새로 문을 연 '제조AI 교육센터'는 기존 교육 인프라에 AI 기술을 접목해 ▲배움터 ▲비전실습실 ▲인공지능 전환(AX) 체험존 ▲통합관제실·쇼룸 등을 조성했다. 교육생들은 제조현장의 AI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며 제조AI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선포한 비전과 제조AI 교육센터 개소는 중소기업 인재양성의 무게중심을 경험과 숙련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옮기는 출발점"이라며,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AI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의 AX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연말까지 제조AI 교육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정규과정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SK인텔릭스
'나무엑스' 앞세워 시니어케어 공략

SK인텔릭스가 인공지능(AI)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로 시니어케어 시장을 추가로 공략한다. 8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최근 대상웰라이프, 한강시스템, 렉스소프트와 '나무엑스' 기반 시니어케어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4자간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4개사는 각사가 보유한 기술과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요양기관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시니어케어 솔루션을 공동 개발·실증하고, 향후 공동 판매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SK인텔릭스는 이번 협약에서 실증사업의 전체 방향을 조율하고, 나무엑스 공급과 서비스 기획에 참여하는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한다. 특히 대상웰라이프와 한강시스템이 보유한 요양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나무엑스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현장 실증(PoC) 결과와 고객 의견(VOC)을 반영해 시니어케어 특화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4개사는 나무엑스를 기반으로 낙상 감지 및 알림, 순찰 기록 자동화 등 요양 현장에 필요한 기능을 실증하고 건강·환경·안전·영양관리를 아우르는 시니어케어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기업 전기화 확산에 전력비 지원 절실

대한상의, 전기화 추진 기업 31.9%
초기투자·운영비 부담 걸림돌

녹색전환(K-GX)의 핵심인 산업 '전기화'에 나선 기업이 10곳 중 3곳에 그친 가운데 주요국처럼 전력비용을 덜어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전기화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서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이 31.9%에 그쳤다고 8일 밝혔다. 추진 예정인 기업은 5.2%에 불과했고 추진 계획이 없는 기업은 62.9%로 절반을 넘었다.

전기화는 화석연료를 쓰는 설비와 공정을 전기 기반으로 바꾸는 것으로 가스 보일러를 전기 히트펌프로, 제철소 고로를 전기로로 교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K-GX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전기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초기투자비와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 절반 이상(56.8%)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 요인으로는 높은 초기투자비(84.0%)와 높은 운영비(56.2%)가 가장 많았고 정책 불확실성(18.5%)이 뒤를 이었다. 이에 기업들은 전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전력조달비용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66.1%)를 들었다.

/원관희 기자 wkh@

한진 원클릭, 가입 고객사 10만 돌파

출시 7년 만에 배송 5000만 박스
비수도권 물동량 전체의 58% 차지

㈜한진의 소상공인 맞춤형 물류 플랫폼 '원클릭'이 서비스 출시 7년간 누적 가입 고객사 10만, 누적 물동량 5000만 박스를 훌쩍 넘어서며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물류 고속도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전체 중 비수도권 물동량이 58%에 달하며 지방 소상공인 물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8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원클릭 누적 가입 고객사는 10만5845개사, 누적 배송 물동량은 5123만 박스로 각각 집계됐다. 2019년 10월 첫선을 보인 한진 원클릭은 대기업 택배 계약 문턱에 부딪히던 초기 1인 창업자와 영세 셀러를 위해 기획된 비대면 간편 계약 플랫폼이다.

단 1건만 발송해도 별도의 서류 계약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발송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슬라이딩 요금제'와 '라벨 자동 출력', '간편 방문 집하'를 지원해 물류비 부담과 출고 공수를 대폭 덜어줬다. 이에 힘입어 가입자 수는 2020년 1만9000개사에서 2026년 10만개사를 넘어서며 작년 기준 연평균 216%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원클릭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과 현지 브랜드들을 전국 유통망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했다.

/김승호 기자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28 AI INNOVATION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LLaMON
AX통합플랫폼

ARAG
Graph RAG

멀티
에이전틱빌더
MCP/A2A

VLM OCR
Voice

복지AX
복지상담·안내

디지털집현전 AI
민원상담 AI

Document AI

LLM 모델
최적화 및 튜닝
LLM/MLOps

MESIM AX
AI연계플래폼
시장 점유율 1위

ESB

APIG
Gateway

망/SAP
연계

Dashboard
Observability
Monitoring

MCP
Gateway

AI연계개발
장애 Agent

KLEVER
디지털트윈
휴먼플랫폼

자율주행
교통

도시
산단
건설

디지털휴먼
플랫폼

레이더검지
AI영상검지

철도
항공
드론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 www.metabuild.co.kr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AIDC·로봇 안정적 사업 확대 속 미래기술 '블록체인' 추진

창간기획 리부트 코리아
K산업의 화려한 부활

㊴ LG CNS

3년간 영업이익 年 평균 0.35%p↑
클라우드·AI 부문 매출 비중 60%

합작법인으로 AIDC 투자 부담 완화
전략적 파트너십 통해 RX 사업 확보
유기적 조직 체계 'AI 센터'로 뒷받침

국내 첫 CBDC 실거래 테스트 진행



현신균 LG CNS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봇전환(RX)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LG CNS

LG CNS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사업 비중 확대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AI 센터'의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해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 클라우드·AI 확대에도 수익 창출…영업이익률 9.1% 달성

LG CNS의 최대 강점은 꾸준한 수익 창출력이다.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8.3%)부터 지난해(9.0%)까지 연 평균 0.35%p 올랐다.

특히 클라우드·AI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을 약 60%까지 키우면서 영업이익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수익성을 방어하고, 기존 사업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합작법인(JV)을 통해 부지 확보와 자본 조달을 추진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구축하는 30㎿급 AIDC도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 부담을 낮췄다.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제조·물류 등 분야의 로봇 전환(RX) 사업도 마찬가지다. 로봇 하드웨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한다. 미국의 스킬드 AI, 덱스메이트 등과 협력해 범용 AI 로봇부터 바퀴를 장착한 휠타입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하다. LG CNS는 여기에 로봇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피지컬 웍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한다.

◆ 'AI센터' 출범 2년…전사 업무 효율화·솔루션 상품성 확보

LG CNS의 이같은 성과는 2024년 설립한 기술 연구·사업 발굴 조직 'AI 센터'가 뒷받침한다. 회사는 연구개발(R&D)과 사업 실행 부서를 연결한 유기적인 조직 체계를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이 조직은 300여명의 AI 전문가가 AI 기술력·플랫폼·비즈니스 활용·프로젝트 딜리버리 등 4가지 분야에서 활동한다. 직무로 보면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지니스 디벨로퍼, 프로덕트 매니저 등 11개로, 전 분야에서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AI 센터는 출범 초기부터 '생성형 AI 오퍼링'을 앞세워 서비스와 기술, 사후 관리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기업 고객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으로, 본 계약 체결 등 성과 달성을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

일례로 여러 거대언어모델(LLM) 중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멀티 플랫폼과 검색증강생성(RAG)을 기반으로 사내 데이터를 연동하는 지식 레이크 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산업의 최대 리스크인 보안 솔루션을 연구해 개념검증(PoC) 단계에서 한발짝 나아갔다.

◆ 차세대 금융 시장 공략…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사업에 주목

최근 주목되는 사업은 차세대 금융 시스템 구축이다. AI 센터 설립 이후 대형 금융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 CNS는 국내 기업 최초로 대규모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주도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의 일환으로, LG CNS가 시스템 설계 총괄을 맡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이다.

이같은 실증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지원할 디지털 자산 인프라 플랫폼 '기틀'도 지난 10월 출시했다. 이는 금융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자산연계(RWA) 등 서비스를 구축할때 필수 기반이 된다.

현재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등 해외 기업 5곳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내 금융기관의 디지털 화폐 사업을 지원한다.

LG CNS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로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로봇전환(RX), 사업 수행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U+, 수능 시즌 맞아 멤버십 혜택 확대

16일~ 20일 '유플투쁠 플러스 위크'
통합 앱 '유플러스 원'서 쿠폰 제공
장기고객 대상 IMAX 영화 관람도



LG유플러스 직원들이 대표 제휴처 '공차'에서 11월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수능 시즌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유플투쁠 플러스 위크'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들을 위해 이 기간 동안 식음료·쇼핑·여행 등 멤버십 혜택을 확대한다.

고객들은 LG유플러스 통합 앱 '유플러스 원'에서 원하는 제휴사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제휴사별로 고객 1인당 1회 제공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행사 기간 중 발급이 마감될 수 있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1 ▲공차 최대 50% 할인 ▲파리바게뜨 최대 8000원 할인 ▲백미당 베스트 메뉴 4종 1+1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쇼핑 분야에서는 ▲다이소 최대 3000원 금액권 ▲롯데마트 제타 온라인몰 최대 50% 할인쿠폰 ▲스파오 최대 1만5000원 할인 ▲오뚜기몰 1만5000원 할인 ▲풀무원 1만원 할인 등을 마련했다. 여행·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서울랜드 파크 이용권 55% 할인 ▲롯데월드 종일권 47% 할인 ▲여기어때 국내 숙소 3만원 할인 ▲롯데렌터카 G car 대여료 60% 할인 ▲NOL티켓 '브래드 윌스 사진전' 최대 50% 할인 ▲빛의 벙커·빛의 시어터 50% 할인 등을 제공한다.

장기 고객을 위한 아이맥스(IMAX) 스페셜 데이는 멤버십 적용 지역을 전주와 부산까지 넓힌다. LG유플러스를 10년 이상 이용한 VVIP 등급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초청 고객수는 총 4000명이다.

상영작은 '듄: 파트 3'다. 장기고객이 예매 부담 없이 수능을 마친 자녀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아이맥스관을 전체 대관했다. 관람을 원하는 고객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유플러스원 앱에서 응모할 수 있다. 행사는 1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CGV 용산아이파크몰 ▲왕십리 ▲영등포 ▲전주효자 ▲부산 센텀시티 등 전국 5개 IMAX관에서 진행된다. /조민선 기자

"한 마디로 나만의 AI 작업공간 만든다"

메타, 뮤즈에 '스페이스' 기능 도입

메타가 이용자의 말 한마디로 일정표와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기능을 선보였다.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개인의 목적에 맞는 작업 공간을 직접 구성하고 외부 서비스의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맞춤형 AI 에이전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6일(현지시간) AI 비서 애플리케이션 '뮤즈(Muse)'에 맞춤형 작업 공간 기능인 '스페이스(Spaces)'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자연어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일정 관리 도구나 프로젝트 보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이다.

스페이스는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집중했다면 스페이스는 실제 생활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된 도구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활용 범위도 다양하다. 여행을 준비하는 이용자는 항공편과 숙소 예약 정보, 날짜별 일정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여행 계획표를 만들 수 있다.

업무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관리 보드부터 고객별 업무와 마감일, 청구서 등을 정리하는 작업 공간까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개인화 기능도 강화했다. 이용자는 생성한 스페이스를 앱의 사이드바나 메인 탭에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표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평일에는 업무 일정표를 전면에 배치하고 주말에는 개인 일정 관리 화면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메타는 이번 기능과 함께 AI의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자체 AI 모델 '뮤즈 원더(Muse Wonder)'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특화 모델을 뮤즈에 적용해 이용자의 과거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유럽 냉동설비 해킹… 과기부, 국내 사업자 보안 점검 당부

초기 비밀번호 바꾸고 관리 강화 권고

유럽에서 사업장의 냉동 설비를 노린 해킹이 잇따르자 정부가 국내 사업자에 보안 점검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냉장·냉동설비 해킹 사례와 보안 권고사항을 민간 사업자와 협·단체에 전파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협조 요청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도 해외 사례와 보안 수칙 전파를 요청했다.

유럽에서는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수백곳의 설비를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1~12일 프랑스 대형마트에서는 해커들이 설비 온도를 원격으로 조작하고, 냉각기에 낀 성에를 녹이는 제상 기능을 악용했다. 일부 매장은 내부 온도가 50도까지 올라 보관 중이던 식품을 폐기했다.

이달 들어서는 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사업자들에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비밀번호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설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할 때는 가상사설망(VPN)을 쓰고, 제조사 보안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조민선 기자

따능AI,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취득

따능AI 크레딧 상품 5종

인공지능(AI) 아트 교육기업 따능스쿨은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따능AI'가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를 지난달 30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심사를 거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발급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을 받은 제품·서비스는 공공조달에서 우대 대상이 된다.

따능AI 크레딧 상품 5종이 확인서에 올랐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AI 소프트웨어 품목에 등록돼 200크레딧부터 10만 크레딧까지 기관 규모와 교육 인원에 맞춰 고를 수 있다.

따능AI는 이미지·영상·음악 생성 및 음성 합성 등 여러 생성형 AI의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한국어 환경에 맞춰 설계됐고, 계정 발급과 크레딧 배분을 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 /김보민 기자 kbm@

연이은 하락장에 반대매매 공포감… 투자자 손실 우려 커져

코스피 등 글로벌 증시 낙폭 커져
한달 새 코덱스 레버리지 45.36%↓
신용거래융자 잔고 28조 넘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단일종목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넉 달여 만에 60% 안팎의 손실을 냈다. /따능 AI 생성 이미지

#.직장인 김민수씨(31)는 올 6월 코스피2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약 5000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50만원을 넘어 300만원에 가까워질 때였다. 5개월째에 접어든 김 씨의 투자상품 평가 수익률은 -72%에 달한다. 김 씨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추는 '물타기'는 물론이고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는 이른바 '손절'도 못한 채 패닉에 빠졌다. 김 씨는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주식시장이 무서워진다"고 말했다.

미국발 '블루웨이브'(민주당 압승)에 국내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빚을 내 투자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투자자들과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은 코스피 200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를 1조2201억원 순매수했다. 개인 순매수액 기준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코스닥 150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양의 2배수로 따르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두 번째로 많은 9411억원 순매수했다.

'KODEX 반도체레버리지'(9위·2572억원),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11위·2113억원) 등 반도체 업종 레버리지 상품도 순매수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수석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낙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계속되면서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 순유입이 많았다"며 "테마별로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차전지,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원자력 등의 순유입 규모가 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블루웨이브' 충격에 코스피가 급락하고, 반도체 '투톱' 주가가 급락하면서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들은 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구조인 만큼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배가된다.

실제 이 기간 KODEX 레버리지는 45.36%,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는 48.79% 각각 떨어졌다.

반면에 코스피 200지수 하락 시 2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곱버스' ETF가 수익률 상위권에 줄줄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7715억원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으로, 개인투자자의 빚투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시장에서는 증시 조정이 이어질 경우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거래 투자자는 담보로 잡힌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추가 반대매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IBK투자증권
달러·엔화 투자상품 확대

IBKS 일본국채신탁 등 3종 선봬

IBK투자증권은 IBKS 외화MMT(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형), IBKS 달러 셀앤바이(SELL-BUY) 신탁(채권형·예금형), IBKS 일본국채신탁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외화MMT는 달러 환전 없이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과 예금, 발행어음 등 단기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달러 셀앤바이 신탁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해 채권이나 정기예금 등에 운용한 뒤 만기에 달러로 되사는 구조다. 스왑포인트(Swap Point)에 따른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국채신탁은 별도 환전이나 해외 계좌 개설 없이 원화로 일본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환헤지를 하지 않아 엔화 가치 변동이 수익률에 반영된다.

이번 출시는 IBK투자증권이 신탁시스템 재구축을 마치고 외화 수탁·운용 체계를 갖춘 데 따른 것이다. /김아영 기자 aykim@

석 달새 우선주 평균 할인율 1.5%p↑… "접근 신중해야"

할인 폭 상위 10개 종목 평균 72.4%
주주환원 제한적… 저평가 해소 과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 직장인 허모씨(31·여)는 2023년 현대차 주식을 사면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1대2~3 비율로 담았다. 우선주로 사면 배당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하지만 올해 현대차 주가가 로봇 기대감에 치솟았을 때 우선주 수익률은 보통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금은 사정이 거꾸로다. 7월 말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현대차 보통주가 28.1% 떨어지는 동안 현대차2우B는 25.2% 하락했다. 보통주 대비 할인율은 48.2%에서 46.1%로 좁혀졌지만, 우선주 값이 오른 건 아니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주는 보통주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과 청산 시 잔여 재산 분배 등 청구권을 보통주보다 먼저 보장받는 주식이다.

8일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7월 말 기준 할인 폭이 가장 크다고 꼽은 우선주 10개의 평균 할인율은 10월 말 종가 기준 72.4%로, 7월 말(70.9%)보다 1.5%포인트 커졌다. 10개 중 7개 종목의 할인 폭이 벌어졌다. 7월 말과 지난달 30일 모두 상장된 코스피 우선주 108개 가운데 보통주보다 싸게 거래되던 76개의 할인율 변화 중간값도 -0.4%포인트에 그쳤다.

할인율이 줄어든 종목도 대부분 허씨의 현대차 우선주와 같은 경우였다. 108개 중 할인율이 줄어든 42개 가운데 31개(74%)는 우선주 가격도 떨어졌지만 보통주가 더 크게 떨어지면서 할인율만 줄었다. 포럼이 꼽은 10개 중 할인율이 줄어든 3개(LG전자우·두산2우B·미래에셋증권2우B)도 모두 이 경우였다. 우선주 가격이 실제로 올라 할인이 좁혀진 종목은 11개에 불과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다. 할인율은 7월 말 27.2%에서 지난달 30일 22.2%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선주 주가도 9.0% 떨어졌다. 보통주가 14.9% 떨어지면서 격차가 좁혀졌을 뿐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자사주 매입 때 우선주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할인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건 대주주와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위해 보통주만 대량 보유하다 보니, 주주환원도 보통주 매입·소각에 쏠려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규식 변호사(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는 "기업 입장에서 우선주는 배당 부담이 큰 반면 주가는 저평가돼 있어, 자사주 소각 시 우선주를 매입하는 것이 자본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우선주 주주를 배제한 채 보통주만 소각하는 것은 명백한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기대만으로 접근하기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패시브 및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보통주 투자 성향이 높고, 우선주가 유동성이 낮다는 점에서 변동성 높은 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도 낮은 편으로 보인다"며 "자사주 매입도 주로 보통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주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싸다는 관점에서 디스카운트 감소를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아영 기자 aykim@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AI 페스티벌' 성료

미래에셋증권은 중국 선전에서 대학생 대상 인공지능(AI) 공모전 '글로벌 AI 페스티벌 2026'의 결선 및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공동 주최하고 선전시 치엔하이관리국 등이 지원한 이 행사에는 중국과 홍콩에서 총 100개 팀이 참여했다.

최종 우승은 북경대학교 HSBC경영대학원 소속 'FindAlpha' 팀이 차지했다. 2위는 홍콩 지역 대학 연합팀 'Herguard'와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팀 'MiraeLens'가 이름을 올렸다.

김승욱 미래에셋증권 Global경영관리부문 대표는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 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 젊은 인재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미래에셋 3.0'이 지향하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융당국,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한시적 면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일환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이 급락하면 투자자는 추가 담보를 내거나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런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담보비율은 빌린 돈에 비해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담보비율이 140%라면 대출금 100만원에 대해 140만원 이상의 담보를 확보한다는 뜻이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담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주가 급락기에는 담보가치가 떨어진 계좌가 늘면서 반대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관련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돈을 빌린 고객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투자자의 반대매매를 일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 기준은 각 증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변동성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투협은 지난 9월 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 위험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모드락마당 '해담정원' 조성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니스프리 모음재단과 공동 조성한 정원 '모드락마당'을 6일부터 10일까지 제주 바람모루공원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제주정원문화박람회'에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약 1247㎡ 규모의 모드락마당은 이지스자산운용의 '해담정원'과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의 '퐁낭정원'으로 구성된다. '모드락'은 여럿이 한데 모여 있다는 뜻의 제주어다.

해담정원은 제주의 햇빛과 바다를 담는다는 의미로, 중산간 식생과 바다 경관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야간에는 반딧불이에서 착안한 태양광 조명을 활용해 자연과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표현했다.

/김아영 기자

스마트농업 키우고 기후위기 대비… 농업 현장 혁신 속도

농어촌공사, 국정이음 회의 개최
AI·빅데이터로 스마트농업 고도화
청년농 창업·농업용수 지원 논의
집중호우·가뭄 대비 시설 개선
기후변화 맞춰 수리시설 개편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가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개편에 나선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정과제와 농촌현장을 잇는 이른바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최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국정과제 68번) 회의와 2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국정과제 43번)' 회의가 그중 일부다.

'KRC 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과제가 농어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이해관계자가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앞선 27일 회의에서는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가운데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위한 현장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농촌 인구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에 맞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라 스마트온실 도입률을 35%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날 테마회의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공사는 '스마트농업 사업 현황 및 확산 방안'과 '스마트온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수행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스마트농업 데이터 표준화'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인공지능 기술 및 기자재 현장 확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반 조성부터 창업 애로사항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지역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협력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 ▲청년농 창업 컨설팅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장비 규격화 ▲온실 특성을 반영한 시공기준 고도화 ▲대규모 온실 운영을 위한 인력 관리 최적화 ▲청년농의 자금·부지 확보 등이다.

공사는 제시된 의견 중 현장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와 전남광주, 고흥군 등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자, 농산업체 관계자, 청년농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뒷받침해 농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전주에서는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국정과제 43번)'를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집중호우와 가뭄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과거 기후 여건을 바탕으로 설계된 수리시설의 현재와 미래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 한계를 진단하고, 시설·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모으는 데 초점을 뒀다.

남재철 전 기상청장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주제로 이상기후가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이어 유승환 전남대 교수는 '기후변화 내재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계획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수리시설 설계기준 강화와 관리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인중 사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회복 중심으로의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환 ▲공사 사업·시설 관리 계획과 기후 취약성 평가 연계 ▲실태조사를 통한 취약지역 지원 확대와 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이 밖에, 기후 여건 변화에 맞춰 설계기준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또 농업인의 의견을 시설관리와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사장은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KRC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사업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선제적 예방과 과학적 대응을 강화해 농어민의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16일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국정과제 70번)을 주제로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국 농업, 미래 전략산업 도약 갈림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위기 진단
인구감소·기후변화 대응 강조
2045년 농업·농촌 미래비전 제시



송미령(앞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45 전략' 세미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노동력 급감 탓에 활력을 상실해 사양길로 치닫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지난 6일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2045 전략,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에서 "과거의 성공 방식이 향후 20년의 미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재해를 비롯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한민국 농업·농촌은 지속 가능성을 시험받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업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도, 혹은 일손 부족과 생산기반 약화로 활력을 잃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마련됐다. 학계·연구기관, 식품, 푸드테크, AI 부문 관계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2045년 우리 농업·농촌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미래상을 제시했다. ▲적은 인력으로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다양한 자원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며 국민 모두에게 '열린 농촌 공간'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美 EPRI와 청정수소 기술협력 강화

한수원, 청정수소 기술 포럼 개최
원자력 수소 생산 실증방안 논의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전력연구소(EPRI) 저탄소자원계획(LCRI) 팀과 공동으로 '2026 청정수소 생산기술 활성화 테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운영 경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PRI LCRI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저탄소 에너지 자원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한수원은 지난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정수소 생산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실증의 성공적인 수행 ▲수전해설비 구축·운영 기술의 국산화 ▲대용량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기술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술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자력 청정수소 수전해 실증시설 건설 및 시운전 단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대용량 프로젝트 개발·설계, 자격 평가 등에 대해 EPRI LCRI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영곤 한수원 수소융복합처장은 "앞으로도 EPRI LCRI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활성화 및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제수로기구 첫 해외 거점 부산에 설립

해수부·IHO, 9일 설립 협정 체결

해양수산부가 이달 9일 서울에서 국제수로기구(IHO)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수로기구 간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다고 8일 밝혔다. 서명식에는 한국 정부 대표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IHO 대표인 루이지 시나피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한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측은 'IHO 인프라센터'를 부산에 설립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IHO는 해도와 해양정보의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최근 세계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표준인 'S-10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S-100은 선박의 항해 장비에서 전자해도뿐만 아니라 조석, 해류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디지털 데이터 국제표준이다.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 등 미래 해양기술에도 S-100이 핵심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IHO 인프라센터는 이러한 S-100 표준의 개발·검증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는 조직이다. 앞으로 S-100 표준의 세계적 확산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프라센터가 국내에 설립되는 것은, 그동안 축적해온 해양정보 기술력과 S-100 표준 개발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라고 해수부는 평가했다. 특히 IHO 인프라센터는 1921년 IHO가 모나코에 본부를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설립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저소득 산재노동자에 내년부터 무료 법률지원

내년 3월부터 대리인 비용 전액 지원

내년 3월 말부터 저소득 산재노동자와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3월30일 시행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 관련해 총 39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가 산재보상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 및 유족이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난청·진폐 등 제외)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청구와 유족급여 청구,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이다. 또 산재보험 급여 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단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노동자나 유족의 별도 비용은 없다. 변호사·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기아서 3조 투자…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거점 도약

기아, 2029년까지 3조 투자
혁신기술 기반 미래차 생산 구축
PBV 중심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원격운전 기술 실증
지역 자동차 산업 미래차 전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6일 오전 기아오토랜드 광주에서 열린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협약식'에 앞서 본관 로비에서 PBV 관련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래모빌리티 제조·실증 거점으로 도약한다. 기아가 2029년까지 전남광주지역에 약 3조원을 투자해 혁신 제조기술 기반의 미래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PBV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남광주가 '미래차 제조 및 실증 거점'으로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기아, 전남대학교, GIST(광주과학기술원)와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PBV(Platform Beyond Vehicle :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 기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를 활용한 기술 실증과 사업화 협력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PBV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전용 차량 개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PBV 셔틀 서비스 실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PV5 WAV 기반 원격운전 기술 실증 ▲물류·여객 등 목적에 따라 차량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실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교통·물류 서비스에 적용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업무협약과 투자계획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자는 내연자동차 중심이었던 지역 자동차 산업을 전동화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생산 기반과 지역의 인공지능(AI)·첨단산업 역량을 연계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엠코코리아의 투자에 이어 기아의 대규모 투자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첨단 전략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가 40여년만의 통합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아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시장 미래차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하도록 특별시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투자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부품업체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전남광주를 글로벌 미래차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북도, 의성 식품산업에 455억 유치

도내 첫 식품 전문 산단 준공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

경북도가 의성에 식품산업 투자 455억 원을 유치하고 도내 첫 식품 전문 산업단지인 의성바이오푸드밸리를 준공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의성바이오푸드밸리에서 열린 '미래 신성장 산업 비전 선포식'에서 산업단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씨위드, ㈜오그래 농업회사법인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업은 총 455억 원을 투자해 83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의성바이오푸드밸리는 22만5,844㎡ 규모로 조성됐으며,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50실 등을 갖춘 워라밸복합문화센터도 마련됐다.

이날 총사업비 145억 원 규모의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도 열렸다. 센터는 세포배양식품의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씨위드는 200억 원을 투자해 세포배양식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6명을 고용한다. 2027년 연간 400톤 규모의 생산체계를 확보한 뒤 2028년 이후 1,200톤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오그래 농업회사법인은 255억 원을 투자해 단백질 식품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37명을 고용한다. 2027년까지 성주에 있는 기존 1·2공장을 이전·통합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최초의 식품 전문 산단 준공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을 계기로 의성을 국가 식품산업의 핵심 테스트베드이자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경북이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 732억 신농업혁신타운 본격 가동

과학영농실증교육관 등 개소

경주시가 총사업비 73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신농업혁신타운의 주요 시설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6일 내남면 상신리 신농업혁신타운에서 과학영농실증교육관과 귀농귀촌웰컴팜하우스,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농업혁신타운은 2018년부터 내남면 상신리 일원 21만여㎡ 부지에 조성됐다.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마쳤으며, 이번 시설 개소로 농업기술 연구·실증부터 교육과 현장 지원까지 연계하는 기반을 갖췄다.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171억 원을 들여 연면적 4,933㎡,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실과 토양분석실, 초유은행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분석과 기술지원, 교육을 담당한다.



6일 경주시 내남면 신농업혁신타운에서 열린 주요 시설 개소식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웰컴팜하우스는 79억 원을 투입한 연면적 1,610㎡, 지상 3층 시설로, 스마트귀농지원센터와 체험실습장, 체류시설 10호 등을 갖췄다. 체류형 농촌체험과 교육·상담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한다. 38억 원을 들인 스마트농업 교육센터에서는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충남도, 3689억 디스플레이 사업 예타 통과

아산 탕정에 국가연구거점 구축

충남도가 총사업비 3689억 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국의 거센 추격에 대응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국비 2789억 원, 지방비 487억 원, 민간자본 413억원 등 총 3689억원을 투입한다.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9104㎡ 부지에 연구지원동과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 연면적 8000㎡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시설 3개 동을 건립하고, 연구장비 56종 56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시설 구축에는 1736억 3000만 원, 기술개발에는 1952억 400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년 1분기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2분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초고해상도·초고색재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AI 기반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등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용인시의회, 쌍둥이 판다에 감사장 전달

12월 중국 귀환 앞두고 감사 전해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은 6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를 방문해 오는 12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자매에게 '시민행복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이송을 앞둔 판다 자매에게 용인시민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 의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송규종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강철원·송영관 사육사 등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강철원·송영관 사육사의 안내로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막내 '슈바오'를 만난 뒤 감사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루이·후이바오 자매에게 '특례명예시민 증서'를, 막내 슈바오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장 의장은 루이·후이바오 자매에게 시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데 대한 감사와 애정을 담아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은 두 판다의 탄생부터 성장을 함께한 강철원·송영관 사육사가 대신 받았다.

장 의장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아쉬워하고 있다"며 "언니 푸바오에 이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선사한 두 판다에게 용인시민의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농업환경 보전 우수사례 첫 수상

김해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6년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가 이 대회에서 수상한 건 처음으로, 올해 경남 수상기관은 김해시가 유일하다. 시는 '분석에서 현장까지, 데이터로 만드는 안전한 김해농업'을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매년 토양과 농업용수를 분석해 쌓은 데이터를 비료사용처방과 농가 현장기술 지원에 활용한 내용이다. 시는 농가별로 분석 결과를 전달하고, 축적한 자료를 종합해 지역별 토양 양분 상태와 변화 추이를 살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해군·방사청과 해양 AI 협력

부산시는 대한민국 해군, 방위사업청과 6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본원에서 '해양 및 함정사업 인공지능 전환(AX)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해군·해병대 국방 AX 거점 개소식, 해양·국방 AI 비전 선포식과 함께 열렸다. 이날 세 기관은 실제 해양·국방 환경과 데이터를 활용해 해양·함정사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데이터 센터 등 해양 분야 AI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김재남 기자 metrobusan99@

울산시
中 해상풍력 생산기지 시찰

울산시는 김상욱 시장이 지난 6일 중국 광둥성 양장시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생산기지를 시찰하고 위진푸(余金富) 양장시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밍양그룹의 초청으로 방문한 김 시장과 지역 기업 관계자들은 헬기를 타고 양장 칭저우 해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16.6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설비를 둘러봤다. 방문단은 이어 밍양그룹 양장 생산기지에서 터빈의 핵심 구성품인 나셀과 블레이드(날개) 제조·조립 공정 및 대형 풍력 설비를 생산해 항만으로 출하하기까지 공급망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았다. /울산=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남양주
왕숙첨단산단 관리계획 고시

남양주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산업단지의 관리 방향을 비롯해 입주 대상 업종, 산업.지원시설용지의 운영 기준,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절차 등이 담겼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와 운영까지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덜 먹고 덜 마시는 시대… '영양설계·경험적 만족' 새바람

비만 치료제가 바꾼 소비 트렌드

식료품 등 구매기준 변화 흐름
식품업계, '소용량·고영양' 대응
주류업계, 제품 체질개선 속도



햇반 부드러운 미니밥. /CJ제일제당



콩단백면 플러스. /대상



슬림핏 콩면. /풀무원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확산이 식품·주류업계의 판도를 바꿀 변수로 떠올랐다. 약물 복용으로 식욕이 줄고 음주 자제 경향이 강해지면서 소비량 자체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최근 식품업계는 '소용량·고영양' 전략으로 줄어든 한 끼 수요를 공략하고 있으며, 주류업계 역시 음주량 감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제품 체질 개선에 나서는 분위기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뇌와 위장에 작용해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들의 식사량 감소가 식품 구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하루 평균 곡류 섭취량은 239.6g으로 전년 대비 12.4g 감소했다. 성인 남녀의 에너지 섭취량 역시 각각 84㎉, 23㎉씩 줄어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91만 1773원)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지출액은 오히려 0.3% 감소했다.

비만치료제를 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식품 구매 변화는 확연히 드러난다. 한 시장조사업체가 15만 가구의 구매를 분석한 결과, GLP-1 사용자 한 명 이상이 포함된 가구의 식료품 지출은 사용 시작 후 6개월 안에 평균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류,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지출에서 감소세가 컸다.

이같은 변화에 식품업계는 용량은 낮추고 영양은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식사량은 줄이더라도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챙기려는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110g 용량의 '햇반 부드러운 미니밥'을 출시했다. 국내 즉석밥 시장 내 소용량(130g 안팎) 제품 비중은 2022년 상반기 4%에서 올해 상반기 16%로 4배 성장했다.

저칼로리·고영양 라인업도 확대하는 추세다. 대상은 단백질·식이섬유·칼슘을 강화한 85㎉의 '콩담백면 플러스'를, 풀무원은 25㎉의 '슬림핏 콩면'을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의 헬스&웰니스(H&W) 제품군 또한 2024년 말 48개에서 올해 10월 기준 129개로 급증했다. 과거 당과 열량을 줄이는 '저당·저칼로리' 경쟁이 이제는 단백질 등의 영양 성분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셈이다.

외식 시장에서도 단백질 중심 소비가 도드라진다.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텍사스로드하우스의 올해 1~9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으며, 스테이크 매출 비중도 63%에서 71%로 크게 뛰어올랐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역시 같은 기간 스테이크 매출이 약 20% 증가했다. 섭취량이 제한되더라도 영양적 가치가 높은 육류(단백질) 중심의 소비를 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만치료제 확산은 주류업계에도 커다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약물 복용 시 식욕뿐만 아니라 음주 욕구 자체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2위 맥주 기업 하이네켄은 최근 영국 거래처 대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GLP-1 비만치료제가 맥주 및 사이다 판매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만감 증대와 음주 욕구 저하로 인해 '연달아 여러 잔을 마시는' 기존 음주 문화가 쇠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주류 시장이 이미 건강 유의와 경제적 부담으로 수년째 판매 감소세를 겪는 상황에서 비만치료제의 보편화는 음주 문화 소비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주류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더 이상 '얼마나 많이 파느냐(소비량)'가 아닌, '줄어든 섭취량 안에서 어떤 영양과 경험적 만족을 줄 수 있느냐'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百 "19세기 영국 크리스마스 마켓 체험해보세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사전예약
미식 등 콘텐츠 강화… 연말축제 육성

백화점업계가 연말 특수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마케팅에 나선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잠실에 대규모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다. 올해는 19세기 영국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구현하고 미식과 패션, 공연 등을 결합해 체험형 연말 축제로 차별화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 잠실 월드파크 야외 잔디광장에서 '2026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행사로, 2023년 첫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은 11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현대 크리스마스 문화의 원형으로 꼽히는 19세기 영국을 주제로 정했다. 약 800평 규모의 공간에 영국 빅토리아 시대 건축 양식을 재해석한 17m 높이의 시계탑을 설치하고 붉은 벽돌과 아치형 창문 등을 활용해 당시 거리 풍경을 재현한다. 기존 크리스마스 트리와 2층 회전목마도 함께 운영한다.



2026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롯데쇼핑

미식 콘텐츠도 강화했다. 영국식 로티세리 치킨과 피시앤칩스 등 현지 음식에서 영감을 얻은 메뉴를 비롯해 전국 유명 맛집과 스타 셰프 브랜드 등 20여개 F&B 매장이 참여한다. 파작과 김밥대장 등은 마켓 전용 메뉴를 선보이며 미쉐린 레스토랑 무키의 한국식 바비큐 닭꼬치 등 겨울철 먹거리도 판매한다.

패션과 캐릭터 콘텐츠도 마련했다. 영국 헤리티지 브랜드 바버는 애니메이션 '월레스와 그로밋'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웰푸드의 '칸쵸 탐정 하우스', 롯데홈쇼핑의 '벨리곰 테이크 스테이션', 롯데컬처웍스의 뮤지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팝업 등 계열사 협업 공간도 운영한다. 이밖에 글로벌 아트토이 브랜드 팝마트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미니 스토어도 들어선다.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미디어 연출도 확대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매 정각 빛과 영상, 음악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타임 쇼'를 진행한다. 매주 주말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캐럴과 뮤지컬 음악을 주제로 라이브 공연을 열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뮤지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프리뷰 공연도 선보인다.

전체 매장은 F&B와 롯데타운 빌리지, 기프트&이벤트, IP 팝업, 프라이빗 라운지 등 5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총 40여개 상점이 참여하며, 바버와 롯데호텔이 협업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는 샴페인과 디저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입장권 사전 예약은 금일 오후 2시부터 롯데백화점몰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진행한다. 빠른 입장과 5000원 할인권 2매를 제공하는 유료 패스트패스와 현장 대기 후 입장하는 무료 일반 예약권을 판매한다. 12월 입장권은 오는 20일, 연말 입장권은 다음 달 7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구매 고객 대상 크리스마스 크래커 증정과 캐릭터 '헤이예티' 경품 행사, 백화점·월드몰 등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우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은 "올해는 19세기 영국 크리스마스 마켓을 주제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별 특색 있는 테마와 롯데타운의 시너지를 통해 연말 대표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신제품

LG생활건강 '피지오겔'
'DMT' 홀리데이 기획세트

LG생활건강의 더마톨로지컬 뷰티 브랜드 '피지오겔(PHYSIOGEL)'이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일러스트레이터 '이이오' 작가와 협업한 홀리데이 한정판 기획세트 4종을 출시했다.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이번 홀리데이 에디션은 피지오겔의 대표 보습·장벽 강화 라인 'DMT(Daily Moisture Therapy)'의 핵심 제품들로 구성됐다.

'DMT 페이셜 크림 홀리데이 기획세트'는 'DMT 페이셜 크림(100ml)' 본품에 75ml 추가 증정품, 토너(50ml)까지 더한 넉넉한 용량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빈틈없는 피부 장벽 강화 및 깊은 보습케어를 돕는다. /이세경 기자 seilee@

CU
치즈 딥핑&멜팅 시리즈

CU가 치즈를 활용한 간편식과 냉장 가정간편식(HMR)을 선보인다.

CU는 '치즈 딥핑&멜팅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김밥과 버거, 주먹밥, 토스트 등 기존 간편식에 치즈를 접목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즐길 수 있는 냉장 HMR까지 상품 구성을 다양화했다.

딥핑 치즈 시리즈는 할라피뇨 체다치즈 소스를 별도로 제공해 매콤한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인 '딥핑 치즈 맵닭강정'과 '딥핑 불제육김밥'은 매콤한 메인 메뉴를 치즈 소스에 찍어 먹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멜팅 치즈 시리즈는 모짜렐라와 체다치즈를 활용해 녹아내리는 치즈의 풍미를 강조했다. '멜팅 체다치즈 불닭' 김밥과 체다·모짜렐라 치즈를 넣은 '멜팅 통모짜떡갈비버거'를 비롯해 '히팅 멜팅 콘 갈릭토스트', '멜팅 치즈 김피탕' 등으로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百, 에이티즈 단독 팝업스토어 운영

13일~22일 강남점 1층 포켓가든

신세계백화점이 이달 미니 15집 'GOLDEN HOUR : Part.6'를 발매하는 글로벌 K-팝 그룹 에이티즈(ATEEZ)의 단독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신세계백화점은 13일부터 22일까지 강남점 파미에스테이션 1층 포켓가든에서 단독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새 앨범의 콘셉트를 오프라인 공간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약 30평 규모의 행사장을 로프와 나무 상자, 드럼통 등 앨범의 분위기를 살린 대형 연출물로 꾸미고, 멤버들의 이미지와 앨범 아트워크를 활용해 팬들이 새 앨범의 세계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에서는 앨범과 공식 굿즈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총 5가지 버전의 앨범을 비롯해 파우치, 머플러, 키링 등 공식 굿즈 6종을 판매한다. 앨범에는 버전별 랜덤 포토카드가 포함돼 수집의 재미를 더했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했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미션에 참여해 스탬프를 모두 모은 고객에게는 아크릴 키링을 증정한다. 에이티즈 멤버들의 친필 사인 앨범도 전시해 팬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빕스, 프리미엄 다이닝 시장 정조준

주요 상권 '그릴 다이닝' 모델 확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가 30년간 축적한 스테이크 경쟁력을 앞세워 프리미엄 다이닝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신규 매장 출점과 기존 점포 리뉴얼을 통해 차별화한 '그릴 다이닝' 모델을 주요 상권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빕스는 오는 9일 서울 잠실 롯데캐슬플라자에 '빕스 잠실점'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국내외 외식 브랜드가 밀집한 잠실역 핵심 상권에 신규 매장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다이닝 브랜드로서 입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빕스가 선보이는 그릴 다이닝은 고품질 스테이크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결합한 매장 모델이다. 새로운 브랜드·공간 아이덴티티(BI·SI)를 적용하고 테이블 서비스를 강화해 기존 패밀리레스토랑과 차별화한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릴 다이닝 매장은 지난 7월 광교점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청량리점을 새로 연 데 이어 기존 송파점과 동탄점도 그릴 다이닝 모델로 리뉴얼했다. 잠실점 오픈 이후에는 오는 12일 대구점, 26일 부천 중동점, 다음 달 17일 수원점을 순차적으로 이전 오픈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갓 튀긴 신라면·33개 이색 요리 맛보러 40만명 몰렸다”

현장르포

구미라면축제

475m 라면 스트릿 메운 관광객
年 2배씩 성장… 올해 40만 예상

농심 구미공장서 갓 생산한 라면
20만봉 한정 ‘구미라면축제면’
보양식·복튀김 라면 등 이색 요리

축제장·인근 상권 40억 경제효과
獨 옥토버페스트 같은 축제 목표



구미라면축제 입구.


축제장 차양 막 아래서 명품 이색 라면 요리를 맛보는 방문객들.

구미역 전면에 우뚝 선 ‘신라면 웰컴게이트’와 대형 붉은색 스크린 옆, 깜찍한 신라면 캐릭터가 ‘구미라면축제’를 찾은 손님들을 맞이했다. 역 바로 맞은편 도로 위 차량 통제선 너머 약 475m 길이로 뻗은 ‘세계에서 가장 긴 라면 스트릿’은 이미 인근 주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빽빽하게 메워져 있었다. 기자가 지난 6일 방문한 구미라면축제는 평일 낮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산인해 그 자체여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2022년 첫해 1만 5000여명으로 출발해 매년 2배씩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구미라면축제’는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지난해 35만 명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4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갓 튀긴 라면’의 힘…인파 속 쾌적한 미식 환경

현장에는 투명한 비닐 가방에 농심 구미공장에서 당일 생산된 따끈따끈한 라면을 가득 채워 짊어진 방문객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라면 백팩은 축제장을 찾는 이들의 필수 인증샷 아이템이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기지인 농심 구미공장에서 갓 생산한 라면을 직송받아 판매하는 ‘갓랜드’의 줄은 끝없이 이어졌다. 한 방문객은 “갓 튀겨낸 신라면의 바삭하고 신선한 고소함은 축제장이 아니면 결코 맛볼 수 없는 특별함”이라고 말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 것을 예상하고, 구역 곳곳에 배치된 안전 및 안내 스태프들이 동선을 원활하게 정리하고, 식사 구역 주변에서 상시로 안내를 도왔다.

특히 취식 공간 뒤편의 퇴식구에서는 스태프들의 신속한 보조 덕분에 잔반을 버리고 그릇을 반납하는 과정이 긴 대기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뤄졌다. 대규모 도심 축제에서 흔히 발생하는 쓰레기 혼잡이나 악취 없이 쾌적한 미식 환경을 유지한 점이 돋보였다.

◆ ‘구미라면축제면’과 33색 이색 라면 요리

올해 축제의 최고 화두는 단연 지역 특화 한정판 제품인 ‘구미라면축제면’이었다. 수입산 소맥분에 의존하던 라면 시장에서 구미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밀가루를 100% 활용해 개발된 이 제품은 20만 봉 한정 생산되어 축제 현장과 농심몰에서 판매됐다.

또 거리 양옆으로 늘어선 33곳의 라면 레스토랑과 라면 트럭에서는 단순한 분식이 아닌 ‘명품 이색 라면 요리’가 펼쳐졌다. 국내산 송이와 능이를 넣은 보양식 라면부터 프리미엄 복튀김을 얹은 라면까지, 셰프들의 독창적인 레시피는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사로잡았다. 차양 막 아래 빼곡히 들어앉은 방문객들은 연신 면발을 후루룩 소리 내어 넘기며 감탄을 연발했다.

◆ ‘아시아의 옥토버페스트’를 꿈꾸다

성수동 팝업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신라면 분식’ 체험 공간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면과 스프, 토핑을 조합하는 ‘라면 공작소’ 체험과 40주년 골드 시식을 즐기느라 열기가 뜨거웠다.

과거 외곽 체육공원에서 개최되던 축제를 2회부터 도심 한가운데 구미역 일대로 옮겨온 결정은 빛을 발했다. 도심 도로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축제장 내에서만 10억원 이상, 인근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에서 30억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를 내며 지역 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실제로 축제장 인근 상권 역시 열기로 뜨거웠다. 인근 카페들마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발 디딜 틈 없는 만석을 이뤘다.

윤성진 구미라면축제 기획단장은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를 능가하는 아시아 대표 식문화 축제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연중 사람들이 찾아와 라면을 즐길 수 있는 상설 라면관 조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국콜마, 기초화장품으로 호주 시장 공략

‘멜버른 한류박람회’ 고객사 동반 참가
150여건 수출상담, 상담액 68억
일반 소비자 1.5만명 부스 방문

한국콜마가 고객사들과 함께 호주 시장 공략에 나섰다. K-뷰티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객사들의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한국콜마는 지난 5~7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쇼그라운즈에서 열린 ‘2026 멜버른 한류박람회’에 고객사를 동반해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한류박람회는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주최로 개최됐다.

최근 호주에서는 기초화장품을 중심으로 K-뷰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의 한국산 기초화장품 수입액은 1억47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1% 증가했다.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국 2위에 올랐으며, 올해 상반기 수입시장 점유율도 19.5%를 기록해 1위 미국과의 격차를 1.6%포인트까지 좁혔다.


지난 5~7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류박람회에서 한국콜마 부스를 찾은 현지 방문객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콜마 주도로 ▲구다이글로벌(라운드랩) ▲파켓(믹순) ▲메르시코(허블룸) ▲아이유닉(아이유닉) ▲기베스트(나인테일즈) ▲HK이노엔(비원츠) 등 고객사 6곳이 함께 참가했다.

특히 약 110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콜마와 고객사들은 총 15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박람회 전체 상담 건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한국콜마와 고객사들의 제품 경쟁력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상담액은 약 68억원으로 추산됐다.

행사장 메인 출입구 앞에 마련된 K-뷰티 전시관에도 현지 바이어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틀간 진행된 일반 소비자 대상 행사에는 약 3만명이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약 1만5000명이 한국콜마 부스를 찾은 것으로 추산됐다.

현장에서 만난 한 바이어는 “K-뷰티는 글래스 스킨과 깨끗한 이미지로 호주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평소 눈여겨 보던 브랜드와 정식 수입 계약을 맺고 싶어 박람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한국콜마 부스에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선크림을 비롯해 에센스, 크림, 마스크팩 등 대표적인 K-뷰티 제품이 전시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고객사와 함께 K-뷰티 제품의 경쟁력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호주 시장의 관심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고객사와 함께 현지 판로를 넓히고 K-뷰티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미약품, 비만 치료 넘어 생활습관 관리

디지털 비만 솔루션 ‘에피데이’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를 진료실에서 환자의 일상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비만 솔루션 ‘에피데이(eppiday)’를 선보인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환자의 주사 투약부터 식사, 운동, 체성분, 컨디션까지 일상 속 건강 데이터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의료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비만 솔루션 ‘에피데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에피데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의 생활습관 관리를 돕기 위해 개발됐다. 환자가 진료실 밖에서 쌓은 건강 기록을 의료진과 연결해 지속적인 비만 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상적인 생활습관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음식 사진을 촬영하면 AI가 영양 정보를 분석하며, 체중과 체성분, 컨디션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자신의 건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동아에스티, ‘DA-1726’ 1상서 효과 확인

〈비만·대사이상 관련 치료제〉

위약 대비 간 지방 68% 감소

동아에스티는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가 개발 중인 비만 및 대사이상 관련 치료제 ‘DA-1726’의 임상 1상 Part 3B 중간 분석에서 위약 대비 간 지방 68%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4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된 ‘Precision Liver Symposium 2026’에서 메타비아 사라 브라운(Sarah Browne) 최고의학책임자(CMO)가 구두 발표했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Oxyntomodulin analogue) 계열의 비만 및 대사이상 관련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임상 결과, 투여 109일 차(16주)에 DA-1726 투여군은 위약 대비 간 지방이 68% 감소했으며, 체중은 13.5% 감소했다. DA-1726 투여군의 기저 대비 평균 체중 감소율은 11.9%로, 평균 12.19k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비만치료제 사용자 94% “탈모 고민 완화”

아모레퍼시픽 ‘라보에이치’
두피강화 클리닉 3종 만족도 조사

아모레퍼시픽 두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라보에이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자들로부터 ‘두피강화 클리닉’ 3종에 대한 높은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로 나타났다. ‘탈모 증상 완화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4%였으며, ‘정수리 탈모 고민이 완화되는 느낌’ 94.3%, ‘헤어라인 탈모 고민이 완화되는 느낌’과 ‘모발이 쉽게 처지지 않고 힘이 생긴 느낌이다’는 각각 91.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라보에이치 ‘두피강화 클리닉 샴푸’, ‘캡슐 트리트먼트’, ‘헤어라인 앰플’ 등 3종을 사용했다. 올해 리뉴얼



라보에이치 두피강화 클리닉 라인.

한 두피강화 클리닉 라인은 라보에이치의 두피 장벽 케어 기술을 적용해 두피 겉장벽과 속장벽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대비 강력해진 두피 모발 특화 성분이 즉각적인 두피 컨디션 회복과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대체불가 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2026년 11월 10일(화) 14:00~16:3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국회의원 안호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메트로경제)
후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록 참가비 무료
문　　의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연사 소개



이종민
- 한전기술지주 대표
- 전 SK텔레콤 부사장



이태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곽은섭
-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이상준
-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제훈
-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40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 : AI시대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강연	14:40~15:00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 AI 시대 전력 인프라 전력 확보에서 연료 · 유연성 · 비용 책임의 설계로
	15:00~15:20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 급증하는 AIDC · 반도체 수요, 지속가능한 전력망 구축 전략
	15:20~15:40	**이상준**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첨단산업 · AI 성장을 위한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과제
	15:40~16:00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 新에너지인프라, AI데이터센터 분포 분석과 지속가능한 확충을 위한 시사점
질의응답	16:00~16:30	언론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기보, 부산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맞손'

8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BNK금융그룹과 '부산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권형택 기보 이사장, 전재수 부산시장, 빈대인 BNK 금융그룹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호반그룹 'K-과학인재 아카데미 성과보고회'

호반그룹과 호반장학재단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2026 K-과학인재 아카데미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대학생 프로젝트 경연에는 인공지능(AI), AI 융합, 물리, 화학 등 4개 분야에 전국 65개 팀이 지원했다. 대상은 자율주행 휠체어 플랫폼을 제안한 인하대 A.I.M팀이 받았다. 김대헌 호반건설 이사회 의장(뒷줄 왼쪽 다섯번째)이 수사장 및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그룹



GS리테일, 10년간 2만3000여명에 미디어 교육

GS리테일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가 운영 10년을 맞았다. 방송 제작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전국 학교와 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결과, 올해 말까지 누적 660회 운영과 2만3000여명 참여를 앞두고 있다. 미디어나눔버스는 방송 제작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량이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GS리테일



조선호텔앤리조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여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2026 푸른등대 조선호텔앤리조트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장학금 지원 대상은 전국 관광 특성화고 재학생 60명이다. 조선호텔앤리조트 CSR팀 김표준 팀장(왼쪽 첫 번째), 지원담당 한병직 상무(왼쪽 두 번째), 한국장학재단 박단호 본부장(오른쪽 두 번째), 인재육성지원부 강용원 부장(오른쪽 첫 번째) 이 함께 축하하고 있다. /조선호텔앤리조트



건국대, '컴브렐라 사랑의 김장봉사' 진행

건국대는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대운동장에서 'KUmbrella(컴브렐라) 사랑의 김장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과 원종필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신한은행 동부본부에서도 배추를 지원하고,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 30여 명이 동참했다. /건국대

현대차, 중학생 환경교육 프로그램 '컬러풀 스쿨' 진행

5개교 환경동아리 학생들 참여
5월부터 자생식물 직접 재배
환경교육, 자원순환 가치 공유



현대차가 지난 7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최한 '컬러풀 스쿨 2026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전시 공간을 관람하며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와 생물다양성,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서울 소재 5개 중학교 학생과 교사, 교육청 및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컬러풀 스쿨 2026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컬러풀 스쿨은 현대차가 국립생물자원관, 서울시교육청, IPC 사회협동조합과 함께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가 진행중인 사회공헌 캠페인 '컬러풀 라이프'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생물다양성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우고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대치중, 문창중, 송례중, 풍납중, 항동중 등 5개 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층꽃나무와 꿀풀, 구절초 등 자생식물 3종을 직접 재배하며 식물의 생장과 개화, 결실 과정을 관찰했다. 활동 과정과 경험은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제작한 아카이빙북에 담았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학교별 활동 사례 발표와 참여 영상 시청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돌아봤다.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자생식물과 환경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현판도 각 학교에 전달했다. 현판은 학교 과학실에 게시해 환경 실천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의 의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폐플라스틱 조각을 활용한 재활용 키링 만들기와 생물다양성 퀴즈, 환경 메시지 패치를 활용한 가방 꾸미기 등이 진행됐다. 행사장 역시 종이 배너와 재사용 가능한 허니콤 보드 패널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조성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생식물을 직접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도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가 생물다양성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시몬스, '韓 상품대상' 마케팅 대상

브랜드 캠페인·퍼포먼스 통해
혁신·참신한 브랜드 경험 선사

시몬스가 한국상품학회 '2026 대한민국 상품대상'에서 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8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한국상품학회가 1997년부터 주최해 온 '대한민국 상품대상'은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1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매년 국내 기업 및 지자체의 우수 상품과 마케팅 사례를 엄선해 시상하고 있다.

시몬스는 올해 브랜드 캠페인 'LIFE IS COMFORT'와 이머시브 아트 퍼포먼스 'The breath before inspiration'을 통해 혁신적이고 참신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케팅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4월 론칭한 'LIFE IS COMFORT'는 시몬스의 대표 슬로건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AI 기술을 배제하고 BGM(배경음악) 대신 일상 속 앰비언트 사운드를 활용하는 등 시몬스 특유의 크리에이티브를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공개 두 달도 안 돼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다.

이어 9월에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6' 기간에 맞춰 성수동에서 신개념 이머시브 아트 퍼포먼스 'The breath before inspiration'을 선보였다. 침대업체가 프리즈 기간에 이 같은 예술적 시도를 펼친 것은 시몬스가 최초다.

서용구 한국상품학회 회장 겸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몬스는 제품을 직접 노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각적인 브랜딩을 활용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브랜드 자산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업계의 관행을 파괴했다"며 "올해도 어김없이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앙대, 동티모르 대통령에 명예박사 수여

동티모르와 인적·학술적 교류 강화

동티모르의 독립과 국제사회의 평화·인권 증진에 힘써온 조제 하무스 오르타 대통령이 중앙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중앙대는 동티모르와 학술·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대는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e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동티모르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힘쓴 오르타 대통령은 199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평화와 인권, 민족 자결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과의 인연도 있다. 오르타 대통령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동티모르 독립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상록수부대를 파견한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해왔다.

중앙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티모르와 인적·학술적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박세현 중앙대 총장(왼쪽 두번째)과 오르타 대통령(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왼쪽부터)오수환 순창군의회 의장, 최영일 순창군수,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이덕현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 신정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이지성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청군 인계면 인근 마을에서 '무브투유' 전북 순창 확대 운영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 'PV5 카고'로 식품·생필품 배송

전북 순창군으로 '무브투유' 확대

기아가 식품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무브투유'를 확대 운영한다.

기아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에 있는 마을 생활거점 '다시 청춘관'에서 기아, 행정안전부, 전북도, 순창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브투유' 확대 운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무브투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지역에서 식료품점 부족으로 식품 및 생활필수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주민에게 저상형 구조와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춘 PV5 카고를 활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아는 올해 3월 행안부와 체결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7월 경북 의성군에 이어 전북 순창군으로 지역을 확대한다. /양성운 기자

서울 사립초 38곳, 11일까지 신입생 모집

오는 16일 온라인 전산 추첨

서울 사립초등학교 38곳이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올해도 학교별로 따로 원서를 내는 대신 통합 포털에서 최대 3개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추첨은 오는 16일 온라인 전산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사립초 신입생 원서 접수를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출생 아동으로,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지난해 입학하지 않은 아동과 조기 입학 희망 아동도 포함된다.

지원은 서울 사립초 입학포털에서 할 수 있다. 원서는 접수 기간 중 24시간 제출할 수 있으며, 한 명당 지원 가능한 학교는 최대 3곳이다.

입학 추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서울사립초연합회가 입학포털을 통한 전산 추첨을 맡고, 교육청 관계자와 경찰관, 학부모, 학교장 등이 참관단으로 참석한다. 추첨 과정은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한다. 당첨 결과는 개별 문자와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인 사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영미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울산보훈지청장 김남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보직인사 △경영관리본부장 김유광 △중저준위사업본부장 이길남 △고준위사업본부장 오주호

부 음 ▲김정묵씨 별세, 정윤덕(연합뉴스 대전·충남취재본부 취재부본부장)씨 장인상 = 8일, 은하수공원장례식장 1호, 발인 10일 오전 7시40분, 장지 은하수공원 봉안당, 044-850-1350.

AI 제작 숏드라마 '저작권 인정'의 의미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최근 생성형 AI로 대본부터 영상·음향까지 제작하는 이른바 'AI 숏드라마'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제작비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무단 복제도 손쉬워져 AI로 만든 콘텐츠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가 업계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법원이 이 문제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A사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47부작(총 약 1시간) 숏드라마를 B사가 제목만 바꾸어 통째로 복제한 뒤 광고 수익을 올린 사안이었다. 중국 우한시 장안구 인민법원은 영상과 음향은 AI로 만들어졌지만 대본 기획, 프롬프트 설정, 생성 영상의 선별·편집 등에 인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적 노력이 담겨 있다고 보아 해당 숏드라마를 시청각저작물로 인정했다. 나아가 법원은 2만 위안(약 4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면서 토큰 소모에 따른 연산 비용과 AI 도구의 라이선스 비용까지 그 산정에 반영했다.

이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어떨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12월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다만 같은 시기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이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데, 이는 영상저작물이 아니라 AI 산출물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된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것이었다.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하고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산출물과 △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한 GAI 활용 저작물을 구분하고, "후자만 등록할 수 있되 그 효력은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친다"고 정리했다. 특히 영상의 경우 AI가 생성한 클립을 단순히 배열·편집한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전환·색채·음향 등을 인간이 직접 설계·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법원의 판단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인간 저작자' 요건이 기본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AI를 단독 저작자로 기재한 작품의 등록 거부가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문화청은 2024년 프롬프트의 구체성, 생성·수정의 시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인간 저작자가 없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대한 보호 규정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결국 각국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그에 대한 '입증'에 있다. 중국 판결 역시 AI 결과물 자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담긴 인간의 기여를 평가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라면 기획안, 프롬프트, 수정 이력 등 창작 과정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두는 등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교섭의 문 연 국회, 문 너머도 살펴야



기자 수첩
박 경 수
〈정치부〉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노동법도 그렇다. 다만 그 효력은 일터에서 증명된다. 법조문에 담긴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한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거나 노사의 논의 범위가 모호하다면 입법 과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었던 두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계한 '장식적·형식적 법률', 그리고 이용석 노무사가 강조한 '현장의 목소리'다. 두 사람이 짚은 지점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노동법은 실제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어려움을 겪는지부터 들어야 한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의 분석과 노사 단체의 의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개별 일터의 사정을 충분히 담았다고 보기엔 어렵다.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왜 노사는 책임 범위를 놓고 합의하지 못하는지를 살펴야 법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보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의도 마찬가지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교섭의 문이 열린 이후까지 살펴야 한다. 노사가 실제로 마주 앉을 수 있는지, 교섭 의제와 책임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합의가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시각과, 법의 불명확성이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이 맞선다. 그러나 어느 쪽의 평가든 현장을 확인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안착 과정이라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야 하고, 혼선이 문제라면 어디서 비롯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법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로 넘기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입법 취지가 실현되는 부분은 살리고, 권리 행사와 책임 이행을 가로막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그 판단의 출발점은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경험이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교섭과 이행 과정에서 쌓인 질문을 다시 입법 논의로 가져오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좋은 법은 통과된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고쳐 나갈 때 비로소 일하는 사람들의 법이 된다.

의견을 듣는 방식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기 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다만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는 일터를 비우기 어렵다. 이들에게 토론회 참석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정작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논의에 충분히 담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의견 수렴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 입법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 /gws032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9일 (음 10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60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됩니다. **72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84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9년생 상대의 마음 돌릴 길이 없습니다. **61년생** 무리한 소망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73년생** 외지로 나가지 마세요. **85년생** 부지런히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입니다.

50년생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62년생** 주위의 얇은 말 듣고 꺾이지 마세요. **74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86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나겠습니다.

51년생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63년생** 하늘이 큰복을 주니 만사형통입니다. **75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87년생** 집안이 화목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52년생 물가에 가려거든 조그만 미루세요. **64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76년생** 동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88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행동하세요.

53년생 건강에 무리 있겠습니다. **65년생** 관제 구설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77년생** 가까운 곳의 나들이는 길합니다. **89년생**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세상이 변해 갑니다.

54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66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78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90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55년생 큰 뜻을 이루니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67년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겠습니다. **91년생** 힘들게 이룬 일일수록 가치 있고 빛나는 법입니다.

56년생 희망이 비추니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세요. **68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80년생** 재물운이 좋습니다. **92년생** 아랫사람을 챙기세요.

57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69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81년생** 정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93년생** 몸이 외지에서 노니 돌아갈 때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58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세요. **70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82년생** 기울었던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의기소침했던 귀하는 의기양양합니다. **94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59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71년생**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합니다. **83년생** 당신의 소질을 보여주세요. **95년생**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관문착적

전쟁에서 적을 공격할 때 도망갈 길을 열어 놓으면 안 된다. 적이 흩어지고 다른 곳에서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다. 반대로 적이 빠져나갈 길을 차단하고 사방을 포위하면 움직일 공간을 잃는다. 그때 공격해야 적은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진다. 성이나 진지에 들어간 뒤 보급로와 퇴각로가 끊기면 군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진다. 싸움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도망갈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가 전투의 결과를 바꾼다. 36계 병법에는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관문착적關門捉賊 계책이 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문을 닫고 도적을 잡는다'는 뜻이다. 문을 닫아 도망갈 길을 막은 뒤 차분하게 도적을 잡는 전략이다. 관문착적의 핵심은 내가 유리한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적을 무작정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환경을 통제하는 계책이다.

재테크에서도 관문착적은 중요한 원칙이 된다. 돈을 벌기 위해 좋은 투자처를 찾는 사람은 많지만, 손실을 만드는 습관을 차단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기분 내키는 대로 투자하거나, 빚내서 또는 헛된 소문을 믿고 투자한다. 승산이 없는 투자에도 무리하게 돈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손실이 생기는 문, 즉 돈이 빠져나갈 문부터 닫아야 돈이 모인다. 관문착적의 지혜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유용하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택할 수 있는 문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어떤 문을 열어야 더 나을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낸다. 필요 없는 문을 없애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가능성만 남기는 것이다. 때로는 불필요한 선택이나 손실을 만드는 습관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달려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다른 방향의 문을 모두 닫아버릴 때 승부가 결정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2		8	7	6
			9			4	3	
								1
		4					2	3
5			8		1			9
6	1					5		
1								
	2	7			5			
3	6	5		8			9	

8	9	4	3		7	2		
7			8		5			6
						7		
	4				2		6	
5								2
	8		9				4	
		1						
9			5		3			4
		3	4		1	5	7	9

4	9	7	2	8	1	5	6	3
8	1	3	5	9	6	7	2	4
5	6	2	3	7	4	9	8	1
9	8	5	4	2	9	3	1	6
3	7	8	6	1	5	2	4	9
2	5	9	7	6	3	8	9	1
6	2	4	8	3	9	1	7	5
7	3	6	1	4	8	9	5	2
1	4	8	9	5	2	6	3	7

6	2	3	1	8	4	5	7	9
9	7	8	3	2	5	6	1	4
4	5	1	9	7	6	3	2	8
2	8	7	6	3	9	1	4	5
5	1	6	9	4	7	8	3	2
3	4	9	7	1	8	2	5	6
1	6	5	2	9	4	7	8	3
7	3	2	4	6	1	9	8	5
8	9	4	5	7	3	6	2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0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 정비사업 '속도전'… 인허가 빠른 자치구·조합에 포상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평가' 실시
인허가 속도에 기본점수 60% 배정
우수 자치구·조합에 모범표창 수여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 정비사업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정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함께 올해 3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서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얼마나 빨리 처리했는지가 자치구의 정비사업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자치구 종합평가에서 기본점수의 60%를 인허가 처리 속도에 배정하고, 사업 기간 단축에 기여한 조합에도 별도로 표창을 수여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해 오는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선정한다. 사업 기간을 줄인 조합 10곳을 선정하는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도 신설한다.

자치구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5개 분야, 11개 항목에 걸쳐 인허가 처리와 행정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기본점수는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을 살핀다. 정성평가에는 갈등관리와 적극행정,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이 반영된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점수 100점 가운데 60점이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에 배정됐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처리기한을 지키면 만점을 받고,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깎이는 방식이다.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노력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면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서울시는 11월 중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뒤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합 표창은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한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 등 총 10곳을 선정해 12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증빙자료를 확인해 최대 2곳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 기한은 11월 20일이다.

이번 평가·포상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통해 지난 6월까지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지난 2월에는 2026~2028년 3년간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해 인허가 공정 관리를 점검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광교신도시·평택 등 이번주 5215가구 청약

분양 캘린더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등 전국 12곳
전체물량 79% 경기 지역에 집중

11월 둘째 주 분양시장에서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평택 등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접수가 이어진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국 12곳에서 5215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체 물량의 약 79%가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들어서는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은 오는 10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방식이 적용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0층, 총 6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공공분양 360가구와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주택 240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동부건설이 공급한다.

인근에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있으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원천역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갤러리아백화점 등 의료·쇼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날 경기 평택시 세교동 '한화포레나 지제역'도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1098가구 규모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근에 있으며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해링턴플레이스 용산 리버뷰' 청년안심주택 635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구미시 형곡동 '형곡 센트럴 아테라'와 강원 춘천시 '남춘천 센트레빌' 등이 접수를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오는 13일 경기 부천시 대장동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1곳이 문을 연다. /성채리 기자 cr56@m

정부 강력대응에도 부동산 규제설 '솔솔'

91주 집값 상승에 규제 가능성 제기
토허제 추가지정·대출축소 내용 유포
국토부 "사실 아냐… 수사의뢰 예정"

서울 집값이 91주 연속 오르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설을 진화한 지 보름여 만에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세대출 축소까지 전방위 규제설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중심으로 퍼진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발표안(11월 중순 예정)' 문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문건에는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주담대 한도도 가격 구간별로 2억원씩 줄인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를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낮추고, 25억원 초과는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무주택자 80%→70%, 1주택자 70%→60%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사실 이 같은 유포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0일에도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 중'이라는 게시글이 퍼진 바 있다.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그 이하 주택은 한도를 2억~4억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국토부는 올해 2월과 6월, 10월 유사 게시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매번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규제설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단 꺾이지 않는 집값이 배경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91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고 강남 3구는 하락세지만 중저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연이은 규제로 다음 규제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확산을 부추겼다.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수원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며, 올해 7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로 지정됐다. 풍선효과로 경기 남부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더 확대된 상황이다.

다만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스스로 시장이 안정돼 간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규제에 나서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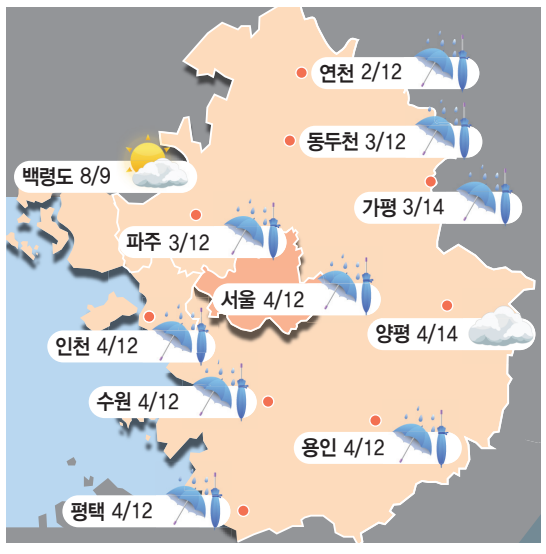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5 | 해짐 / 17:26

11월 9일 (月)
음력 : 10월 1일

수도권 날씨
4 ~ 1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IPARK현산, 동절기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

경영진 김해 현장 2곳 방문, 사고예방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겨울철을 앞두고 공정 단계가 서로 다른 김해 현장 2곳에서 안전·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준공을 앞둔 현장에서는 공사 완성도를,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지반 동결과 결빙 등에 따른 사고 예방 조치를 살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일 정경구 대표이사와 양승철 최고안전책임자(CSO),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이상영 PD, 한동준 안전품질부문장 등이 김해도시계획시설 토목공사 현장과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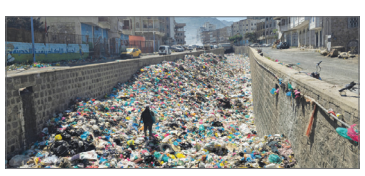
이번 점검은 일교차가 커진 시기 근로자 보건 관리 현황과 주요 작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12월부터 진행하는 본격적인 동절기 점검에 앞서 현장별 위험요인을 살폈다.

정 대표는 김해도시계획시설 토목공사 현장에서 토공과 지형 조성 상태, 조경 배치, 도로포장 등 공사 완성도를 중심으로 준공 전 조성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동절기 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했다. 파일 항타와 흙막이 등 토공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만큼 지반 동결·해빙에 따른 장비 전도사고 예방 조치와 결빙·미끄러짐 사고를 막기 위한 근로자 안전동선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사우디 공습으로 사나 인근에서 최소 33명 사망 39명 부상…후티 반군 /사진 뉴시스

▲日, "탄약·미사일 충분히 비축해야"…국가방위 전략에 명기 방침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규모 5.7 지진 발생..아이치현 치타 시에도

▲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 피해 일주일여 만에 CFO 교체

▲트럼프, 백악관 비서실장 교체 뒤 "추가 인적 개편 거의 없을 것"

▲미군, 경고 무시하고 봉쇄 뚫으려던 세인트키츠 국적 상선 공격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0호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비만치료제가 바꾼
소비 트렌드
고영양·소용량
L1

33개 이색요리
구미라면축제
40만명 몰렸다
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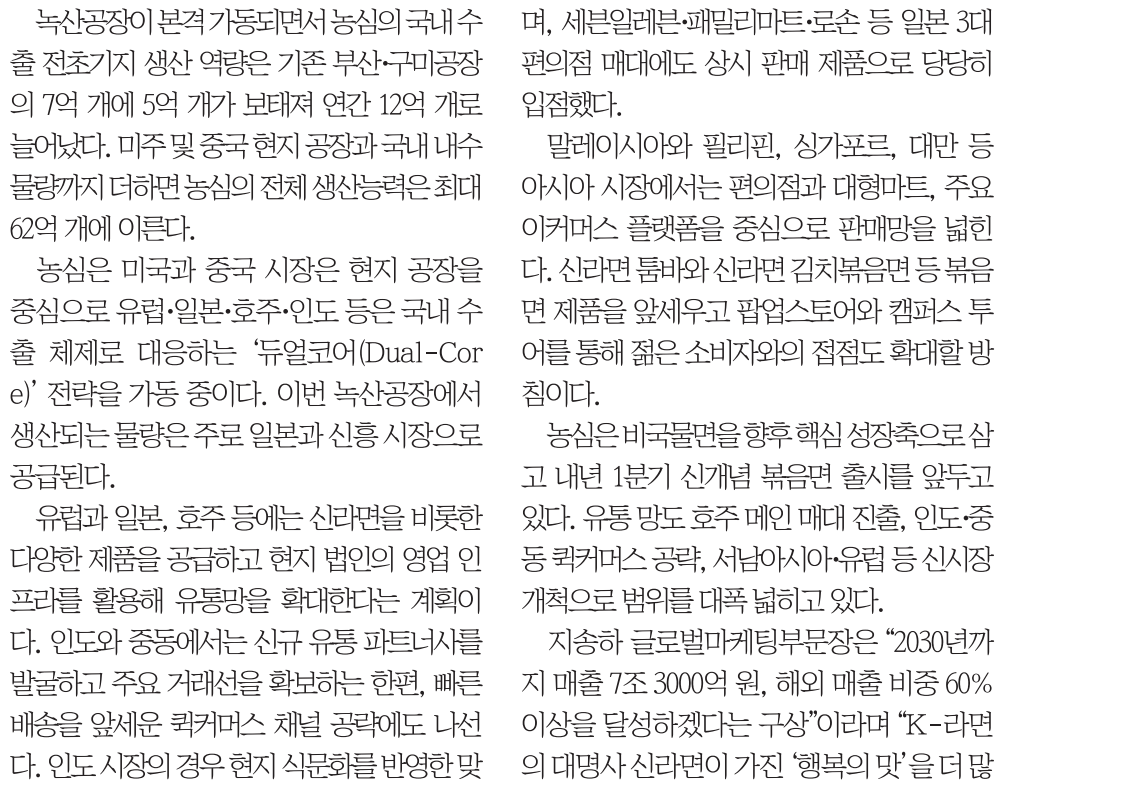


1분당 600개 '척척'… K-라면, 첨단 시스템 타고 세계로

르포 | 글로벌 수출 전용 생산기지 '농심 녹산공장'

유리 너머 거대한 롤러 사이를 쉴 새 없이 통과하며 매끄럽게 펼쳐지는 하얀 반죽이 장관을 이룬다. 꼬불꼬불 경쾌한 물결을 그리며 튀겨진 면발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고속 포장 기계를 거친 라면들이 붉은색 봉지에 담겨 1분당 600개 이상의 속도로 눈깜짝할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농심의 첫 수출 전문 공장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이 쉼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K라면 글로벌 전초기지' 그 자체였다.

이곳은 농심이 오직 글로벌 수출만을 겨냥해 세운 생산기지다. 지상 6층, 연면적 4만 8178㎡ 규모의 기존 부산공장 부지를 탈바꿈시켜 조성했다. 봉지면 2개, 용기면 1개 등 총 3개 라인이 먼저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곳에서만 연간 5억 개의 라면이 생산된다. 향후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최대 8개 라인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농심 녹산수출전문공장에서 신라면이 생산되고 있다. /농심

부산에 K-라면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ERP 시스템·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최종검수도 AI 딥러닝… 오차 줄여
품목교체 4분의 1 단축·생산성 18%↑

年 5억개 생산… 국내 수출역량 12억개
다양한 제품 공급 '듀얼코어 전략' 가동

히트작 신라면 툼바 등 해외매출 상승
내년 볶음면 출시… 신시장 개척 나서

◆AI와 로봇이 이끄는 첨단 스마트 팩토리

녹산공장의 최고 무기는 단연 스마트 기술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이 생산 지시를 내리면 작업자의 손길 없이도 설비가 알아서 세팅된다. 공장 내부를 들어서면 기계의 미세한 진동과 전류 흐름을 실시간 감지하는 '예지보전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한다. 기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고장으로 인한 멈춤 현상을 미리 막아낸다.

포장 라인에서는 마그네틱 이송 시스템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쾌속으로 지나가는 제품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복도 한편에서는 바닥 센서로 경로를 짚어내는 자율주행로봇(AMR)이 바쁘게 자재를 날랐다. 별도의 바닥 유도선 없이 센서만으로 이동 경로를 찾아 포장재 등 각종 자재를 생산라인에 자동 공급하는 방식이다. 완성된 제품의 최종 검수 역시 AI 딥러닝 기술이 맡아 오차를 줄인다. 이같은 첨단 설비 투자는 생산 효율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제품 종류와 생산 물량에 따라 라인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품목 교체 시간도 기존 국내 공장 대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다. 볶음면과 용기면, 비건 제품 등 국가별로 세분화되는 글로벌 소비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윤열 녹산공장장은 "AI 도입의 진정한 목적은 인력 감축이 아닌, 현장 근무자가 더욱 높은 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돕는 데 있다"며 "AI 기술 적용으로 전체 생산성이 약 17~18% 향상됐다"고 설명했다.수출 제품의 품질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도 갖췄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 22000 인증도 확보했다.

◆'듀얼코어' 전략으로 신시장 공략

녹산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농심의 국내 수출 전초기지 생산 역량은 기존 부산·구미공장의 7억 개에 5억 개가 보태져 연간 12억 개로 늘어났다. 미주 및 중국 현지 공장과 국내 내수 물량까지 더하면 농심의 전체 생산능력은 최대 62억 개에 이른다.

농심은 미국과 중국 시장은 현지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일본·호주·인도 등은 국내 수출 체제로 대응하는 '듀얼코어(Dual-Core)'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번 녹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주로 일본과 신흥 시장으로 공급된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에는 신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현지 법인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유통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도와 중동에서는 신규 유통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주요 거래선을 확보하는 한편, 빠른 배송을 앞세운 퀵커머스 채널 공략에도 나선다. 인도 시장의 경우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농심의 최근 해외 성적표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심의 해외 매출 비중은 71%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히트작으로 자리 잡은 '신라면 툼바'는 해외 누적 판매량 1억 4700만 개를 돌파했으며, 세븐일레븐·패밀리마트·로손 등 일본 3대 편의점 매대에도 상시 판매 제품으로 당당히 입점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서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넓힌다. 신라면 툼바와 신라면 김치볶음면 등 볶음면 제품을 앞세우고 팝업스토어와 캠퍼스 투어를 통해 젊은 소비자와의 접점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심은 비국물면을 향후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내년 1분기 신개념 볶음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유통 망도 호주 메인 매대 진출, 인도·중동 퀵커머스 공략, 서남아시아·유럽 등 신시장 개척으로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있다.

지송하 글로벌마케팅부문장은 "2030년까지 매출 7조 3000억 원, 해외 매출 비중 6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라며 "K-라면의 대명사 신라면이 가진 '행복의 맛'을 더 많은 세계 소비자들이 일상 속 첫 경험과 나만의 레시피로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농심 부산 녹산 수출전문공장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규모	연면적 4만 8178m², 지상 6층
생산라인	총 3개 라인 가동 *최대 8개 라인 확대 가능
생산규모	연간 라면 약 **5억개** 생산
특징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 스마트팩토리

농심 녹산수출전문공장 외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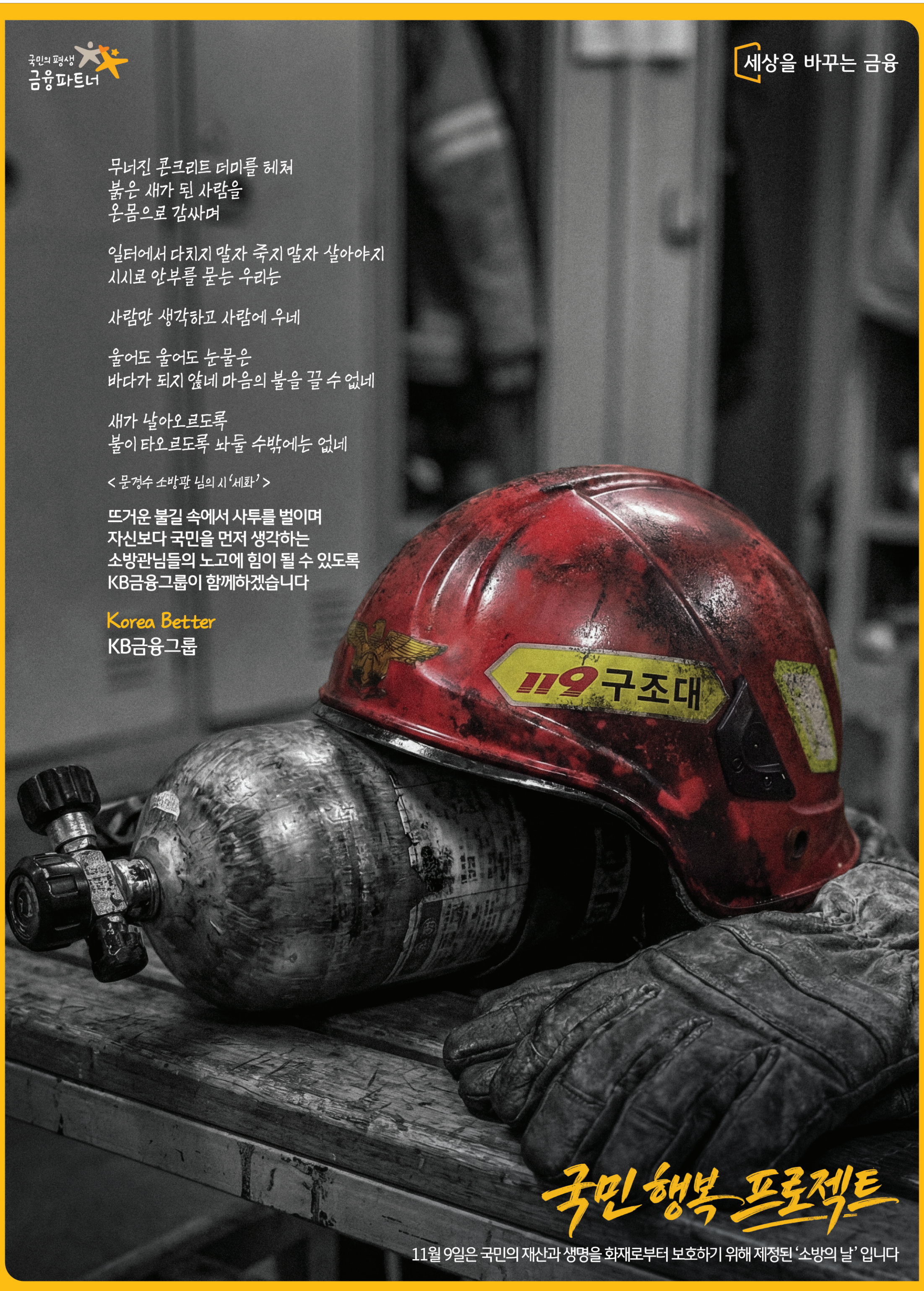


농심 녹산 수출전용공장에서 포장된 신라면이 생산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최강' 안세영, 코리아오픈 정상 탈환…시즌 11승·55연승·승률 98.6%
▲삼성, 한국시리즈 5차전서 KT 12-1 완파…통산 9번째 우승 /사진 뉴시스
▲백승호 두 달 만에 부상 복귀…버밍엄, 엄지성 선발 뛴 스완지 제압
▲피겨 이해인, 시즌 첫 그랑프리서 역전 동메달…트리플 악셀도 성공
▲"K-브랜드 호주서 알렸다" 현대百, 멜버른 한류박람회에 1만명 방문
▲"금값 다시 꿈틀"…주얼리 중고매물 쏙 들어갔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헤쳐
붉은 새가 된 사람을
온몸으로 감싸며
일터에서 다치지 말자 죽지 말자 살아야지
시시로 안부를 묻는 우리는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에 우네
울어도 울어도 눈물은
바다가 되지 않네 마음의 불을 끌 수 없네
새가 날아오르도록
불이 타오르도록 봐둘 수밖에는 없네
< 문경수 소방관 님의 시 '세화' >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119 구조대
국민 행복 프로젝트
11월 9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소방의 날' 입니다
KB 금융그룹